

6일 Market Index			
↑ 코스피	5584.87	↑ 코스닥	1154.67
	(+0.97)		(+38.26)
↑ 금리 (연이자율)	3.227	↑ 환율 (원/달러)	1481.60
	(+0.038)		(+13.50)

metro 경제

현대차그룹
로보택시
상용화 순항
02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0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3월 9일 월요일

국제유가 100달러 눈앞... 물가폭등·경기후퇴 'S 공포'

(스태그플레이션)

미-이란 전쟁, 韓 경제 영향

현대경제연구, 단계별 시나리오 제시
유가 100달러 시, 韓 성장률 0.3%p ↓
150달러 넘으면 최소 0.8%p 하락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여파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부각되는 모습이다. 이는 고물가와 경기 후퇴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례적 현상이다. 1970년대 후반 제2차 석유파동 때 주요국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뒷걸음질했는데, 물가는 내려앉지 않고 오히려 갑절로 뛴 바 있다.

통상 경기가 개선세를 보일 때는 수요 증가에 따라 물가가 오르게 마련이다. 반대로 경기가 위축되면 수요 감소에 의해 물가는 하락한다. <관련기사 4면> 그러나 1979년에는 달랐다. 이란-이라크 전쟁 등에 의해 원유 공급이 줄어들어 국제유가가 뛰면서 전 세계 소비자물가를 크게 밀어 올렸다. 물가 급등은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가계의 구매력 위축, 실업자 양산 등의 문제를 야기했고 결국 각국 경기는 침체의 늪에 빠져들었다.

지금도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 오만만으로 이어지는 수송 뱃길이 사실상 막히면서 중동산 석유의 세계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

라를 비롯해 중국, 아시아 주요국 등이 이 같은 서아시아산 의존도가 높다.

8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중동산 두바이유 선물(올해 3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가 코앞이다. 지난 6일(현지 시간) 기준 99.14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하루 새 9.83달러(11.01%)나 뛰었다.

북해산브렌트유(5월 인도분)와 미서부텍사스산원유(WTI·4월 인도분) 역시 같은 날 90달러대에서 거래를 마쳤다. WTI 선물의 경우 미국-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기습 직전인 2월 중하순경 배럴당 65달러 안팎에 머물던 상황이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펴낸 '미-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향후 예상 시나리오를 유가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우선 중동사태 장기화로 수개월간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 경우 경제성장률이 최소 0.3%포인트(p)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p 오를 것으로 봤다.

미국 또는 연합군이 지상군을 투입하거나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는 이른바 '오일 쇼크' 시나리오하에서는 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성장률 최소 -0.8%p에 소비자물



기름값 3주째 상승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 여파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3.3원으로 전날보다 3.9원 올랐다. 경유 가격은 리터당 1915.37원으로 집계됐다. /뉴시스

가 상승률 +2.9%p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연구본부장은 "현재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는 경기가 아직 바닥을 안 찍었고 회복국면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M-커버스토리

5대 손보사 車보험 연간 4585억 '적자'

손해율 평균 88.5% '급증'

주요 손보사, 車보험료 1%대 인상
갱신 물리는 3~4월 소비자 체감
업계, 보험료·할인체계 손질 검토

개인용 자동차보험료가 2월 책임개시 계약부터 평균 1.3~1.4% 인상됐지만 자동차보험 손익은 적자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5년 대형 5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익은 4585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1월 손해율도 평균 88.5% 수준으로 90% 안팎에 근접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결제일이 아니라 보험 시작일(책임개시일) 기준으로 적용돼 갱신 수요가 물리는 3~4월에 소비자 체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주요 손보사가 2월 중순 책임개시 계약부터 1.3~1.4%를 반영하면서 갱신 계약이 돌아오는 운전자부터 보험료가 순차적으로 오른다.

<관련기사 3면>

자동차보험료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하 흐름이 이어진 뒤 올해 5년 만에 '인상 전환'했다. 업계는 물가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1%대로 낮췄지만 손해율 반등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이 부담으로 꼽힌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라, 보험료 변동이 곧바로 체감 지출로 연결된다.

비용 압력은 여전하다. 손보업계는 1월 대형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5.6~94.0% 범위까지 벌어졌다고 집계했다. 업계가 통상 손익분기점으로 보는 손해율(사업비 포함) 수준을 웃도는 구간이 길어질수록, 요율을 소폭 조정해도 손익 개선이 더디다는 설명이다. 사고 건수보다 '사고 1건당 평균 수리비'가 커지는 흐름과 휴업손해 산정에 쓰이는 노임단가 상승도 비용 요인으로 거론된다.

2025년에는 자동차보험 적자 전환이 손보사 전반의 손익 감소(전년 대비 11.5%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손보사들은 보험료 조정과 함께 무사고·운전경력 인정 확대 등 할인 체계를 손질해 부담을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CPI) 구성 항목으로 분류돼 보험료 조정이 곧바로 민생·물가 논쟁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변수다. 금융당국은 CPI 내 자동차보험료 가중치가 3.7로 택시비(3.2), 도시철도료(2.2)보다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물가와 실적이 동시에 걸린 의무보험"이라며 "보험료 논쟁을 줄이려면 치료·수리 비용을 건드리는 제도 개선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역대급 호재' 삼성전자... 노조파업 발목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오늘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
과반 찬성시 단계적 투쟁 계획



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확대라는 역대급 호재 속에서 노조 파업이라는 초대형 변수에 직면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달 업계 최초로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규격인 HBM4 양산 출하에 나섰다. 이 제품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루빈'에 적용될 예정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요 공급사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 H200칩 생산을 중단하고 베라루빈을 중심으로 차세대 AI 반도체 전략을 재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전자의 수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베라루빈 조기 출시 등에 따른 초특급 수혜 기대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노조의 파업 사태라는 변수에 직면했다.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9일부터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

해 쟁의권을 확보할 경우 4월 23일에 평택사업장에서 전 조합원 집회를 열고, 이후 상황에 따라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공동투쟁본부에 참여한 노조는 초기 업노조 삼성전지지부, 전국삼성전지노동조합(전삼노), 삼성전지노동행 등이다. 이미 임직원의 절반 이상이 가입해 사실상 과반 노조가 된 상황이다. 특히 조합원 대부분인 약 5만명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소속으로 알려졌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또 향후 투자 여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

다. 반도체 산업은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가 적기에 이뤄져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파업 시 회사는 10조원의 손실을 보지만 직원들의 손해는 4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에서는 노조가 직원들에게 파업 참여를 강요하며 노사 갈등을 지나치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지난 5일 유튜브 방송에서 "총파업 기간 동안 집행부는 평택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회사에 협조하며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 향후 전매나 인사 조치 협의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측은 주택대부 최대 5억 원 지원과 임금 6.2% 인상안 등을 노조측에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성과급 산정 기준 투명화와 상한 폐지, 임금 인상률 7% 등을 요구하며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9일 중동 상황 관련 '경제·물가 점검' 비상경제회의 주재
▲정청래 "검찰개혁, 이정부·민주당 상징...입법권 당에 있어 조율 가능" /사진 뉴시스

▲국힘 "1주택 실수요자까지 증세 타깃 삼는 구상은 탁상행정"
▲조국혁신당 "尹이어도 코스피 6000?...한동훈, 국민 정서 모르나"

▲이준석 "부정선거론자 교정 위한 교육사이트 개설...이수중도 발급"
▲조현 외교부 장관, "중동서 우리 국민 150여명...귀국 총력 대응"

노란봉투법 개정안 시행 임박 경영계, ‘불법쟁의’ 자제 촉구

원청기업 상대 직접교섭 요구 가능
경총, 입장문 통해 노동계 협조 당부
“원하청 상생·협력교섭 절차 확립”

경영계가 오는 10일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입장문에서 “일부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된다.

경총은 “아직 법 시행 전임에도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을 하는 등 불법적인 실행력을 통해 회사를 압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노동계는 원청

기업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용자 범위 확대와 교섭 대상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총은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해석 지침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교섭 절차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노동계의 교섭 요구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엄정한 판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도 ‘원하청 상생과 협력의 단체교섭 절차 체크포인트’를 마련해 회원사에 배포하고 단체교섭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 올바른 단체교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맞아 급속·공공·서비스·건설노조에 속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

라면서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해선 7월 총파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 등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상생 협력을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는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우수 실천 기업에 대한 격려와 모범사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총 36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삼성전자, SK수펙스추진협의회,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네이버 등 상생을 실천하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한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참석하는 기업인들은 현장의 생생한 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상생 생태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성운·서예진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모셔널 현대차 아이오닉 5 로보택시가 라스베가스 거리를 주행하는 모습.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 ‘로보택시 상용화’ 순항

자율주행 시스템, AI 중심 구조 재설계
안전 최우선... 고객 경험 개선 작업

현대자동차그룹이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과 함께 올해 말 상용화되는 무인 로보택시 계획을 공개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로라 메이저 모셔널 CEO는 현대차그룹 공식 팟캐스트 채널 ‘현대진행형’에 출연해 모셔널의 자율주행 기술 비전을 공유하며 올해 말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 준비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진행형’은 모빌리티 기술을 주제로 한 지식 콘텐츠로 지금까지 총 13개의 에피소드가 공개됐으며 이번이 14번째 에피소드다. 업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는 형식이 일반적이지만 현대차그룹 고위 임원이 직접 출연해 소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뷰는 진행자들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메이저 CEO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메이저 CEO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의 핵심 전환점으로 AI 중심 구조로의 시스템 재설계를 꼽았다. 그는 “2024년 자율주행 시스템 구조를 AI 중심(AI-first)으로 재설계하고 거대 주행 모델로 전환한 결정이 중요한 번복점이었다”고 말했다.

기존 기술을 개선하는 방식과 달리 시스템 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작업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적용하면서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메이저 CEO는 이러한 구조 전환이 주행 품질 향상뿐 아니라 복잡한 도시 환경 대응 능력, 글로벌 확장성, 운영 비용 측면에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모셔널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셔널은 거대 주행 모델을 할

용한 엔드투엔드(E2E) 방식을 전체 주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적인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며 “돌발 상황 등 약 1% 수준의 옛지 케이스에는 오랜 기간 검증된 가드레일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드레일 방식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두는 안전 방어 체계를 의미한다. 메이저 CEO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1%의 옛지 케이스가 자율주행 성능을 향상시키는 핵심 학습 데이터”라고 말했다.

모셔널은 현재 미국 여러 지역에 연구개발 거점을 운영하며 자율주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특히 라스베이거스와 피츠버그 두 도시에서 집중적인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메이저 CEO는 “두 도시를 전략적으로 선택했다”며 “라스베이거스는 계획된 도시 구조와 넓은 도로 등 현대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피츠버그는 좁고 굽은 도로와 복잡한 교차로 등 오래된 도시 환경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이저 CEO는 모셔널의 상용화 경쟁력으로 실제 서비스 경험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꼽았다. 모셔널은 그동안 우버(Uber)와 리프트(Lyft) 등 차량 호출 플랫폼과 협력해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13만 회 이상의 자율주행 서비스 경험을 확보했다.

메이저 CEO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뿐 아니라 승객 경험을 개선하는 작업도 상용화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말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지속적인 기술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용화 이전에 승객 경험 전반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metro



삼성전자 마이크로 RGB TV 제품 이미지.

/삼성전자

LG 마이크로RGB 에보 제품 이미지.

/LG전자

TV경쟁 치열... K-기업, ‘마이크로 RGB’ 승부

삼성 크기·화질·디자인 등 경험 개선
LG AI 프로세스 탑재... 성능 강화

TCL과 하이센스 등 중국 TV업체들이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출하량을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프리미엄 TV 중심 전략과 함께 ‘마이크로 RGB’ 기술 경쟁에 속도를 내며 시장 방어에 나서려는 분위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글로벌 TV 출하량은 615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 시장 출하량은 전년 대비 25.3% 낮아져 주요 지역 가운데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이는 중국 정부의 가전 보조금이 종료된 데다 중국 내 민간 소비 위축이 이어지면서 출하량이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TCL, 하이센스 등 중국 TV 업체들은 지난해 4분기 북미와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 출하량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미와 서유럽의 출하량은 각각 4.7%, 3.2% 증가했다. TCL과 하이센스의 지난해 4분기 합산 출하량도 전

년 대비 2.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자국 시장 위축에 대응해 해외 주요 시장으로 판매 축을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TV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기업들은 프리미엄 TV 라인업을 강화하는 등 고부가 제품 중심 전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백라이트를 초소형화하고 RGB(빨강·초록·파랑) 소자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마이크로 RGB’ TV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기술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대비 성능은 다소 낮지만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115인치 마이크로 RGB TV를 출시한 데 이어 2026년형 마이크로 RGB TV 라인업을 55·66·75·85·100인치 등 총 6가지 사이즈로 다양화에 나섰다. 앞서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더 퍼스트 룩’ 행사에서는 130인치 마이크로 RGB TV를 공개하며 크기, 화질, 디자인, AI기술까지 한 단계 끌어올린 차세

대 TV경쟁을 선보이기도 했다.

LG전자 또한 지난해 마이크로 RGB 에보를 공개하며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시장 입지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이 다. 해당 제품은 최신 마이크로 RGB 기술과 LG 올레드의 광원 제어 기술을 융합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OLED TV에 들어가던 LG전자의 3세대 알파11 AI 프로세서를 탑재해 화질 처리 성능을 끌어올렸다. 아울러 LG전자는 올해 ‘LG 올레드 에보 W6’와 2026년형 LG 올레드 에보 라인업을 선보였다.

LG전자는 올 초 CES2026 현장에서 “마이크로 RGB 에보와 미니 RGB를 함께 준비하며 경쟁사와의 차별화 포인트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TV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단순 출하량 경쟁보다는 프리미엄 제품과 기술 경쟁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은 OLED와 차세대 RGB 기반 기술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물가 관리 최우선... 유류세 인하 고려해야”

>> 1면 ‘국제유가 100달러 눈앞’서 계속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내수에는 치명적이다.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 조짐까지 나타나면 수출도 꺾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상황에서는 물가가 첫 번째 타깃이 돼야 한다”며 “주유소들이 급격히 가격을 올리자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건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고 전쟁이 장

기화되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이미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부채 위기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김 교수는 “(금리인상 등) 거시 정책을 사용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며 “미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거나 인프라 투자를 늘려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도 늘려주는 정책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치료비 늘고 수리비 뛰어... 보험료 조정만으론 '역부족'

車보험 적자 압박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에 근접하면 손익이 구조적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경계선에 다가섰다는 뜻에 가깝다. 손해율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이다. 자동차보험은 여기에 사고 처리·보상 인력과 시스템 운영비 같은 사업비가 더해져 손해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손익이 구조적으로 적자로 기운다.

◆ 4년 연속 인하의 누적

수치는 이미 적자를 나타낸다. 대형 5개 손보사(삼성·현대·KB·DB·메리츠)의 자동차보험 손익 합계는 2024년 2837억원 흑자에서 2025년 4585억원 적자로 1년 만에 급전환했다. 업권 전체로 봐도 2024년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이 97억원 적자로 돌아서 '흑자 사이클 종료' 신호가 켜졌다. 직전 해(2023년)에는 5539억원 흑자였다.

4년 인하 여파에 수익성 급격히 악화 손해율 치솟자 車보험 손익적자 전환 경향 치료비 늘고 향후치료비 부담 확대 사고건수보다 건당 처리비용 더 문제

손해율도 계단식으로 올라왔다. 업권 기준 2024년 손해율은 83.8%로 전년(2023년 80.7%)보다 3.1%포인트(p) 뛰었고, 사고건수도 383만건으로 전년(376만건) 대비 늘었다.

2025년엔 누적 악화가 뚜렷해졌다. 대형 4개사(삼성·현대·KB·DB)의 2025년 1~11월 누적 손해율은 86.2%로 전년 동기보다 3.8%p 상승했고, 11월 단월 손해율은 92.1%까지 치솟았다. 올해 들어서도 1월 대형 5개사 평균 손해율은 88.5%로, 전년 동월(81.8%) 대비 6.7%p 악화됐다.

앞서 손보사들은 상생금융·물가 부담 속에 자동차보험료를 2022년 1.2~1.4%, 2023년 2.0~2.5%, 2024년 2.1~3.



Chat GPT가 생성한 치료비 급증 이미지.

0%, 2025년 0.6~1.0%씩(대형사 기준) 4년 연속 인하해 왔다. 업권 실적 통계에서도 평균 자동차보험료가 2022년 72만 3434원 → 2023년 71만 7380원 → 2024년 69만 1903원으로 낮아진 흐름이 확인된다. 2026년 2월 책임개시부터 1.3~1.4% 인상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손해율이 80%대 후반~90% 안팎에서 고착되면 '인상으로도 숨만 돌리는' 구조가 된다.

◆ 경상환자·향후치료비가 키운 '누수' 논쟁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료의 상단을 밀어 올린 요인으로 '치료비 누수'를 지적해 왔다. 당국 자료에 따르면 관철·근육 염좌 등 경상환자 치료비는 최근 6년간 연 9%씩 늘어 2023년 약 1조 3000억원에 이르렀다. 관행적으로 지급돼 온 향후치료비도 2023년 1조 4000억원 규모로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거론된다.

치료비의 '장기 추세'도 비용 압력을 설명한다. 경상환자 보험금이 2016년 1조 9000억원에서 2020년 2조 9000억원으로 늘었다. 경상환자 치료비 중 한방치료비는 같은 기간 3101억에서 808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당국은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장기치료 필요성을 심의하는 절차(8주 룰) 도입을 예고했다. 손보업계는 "과잉진료·장기치료를

줄여야 보험료 인상 압력이 낮아진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와 일부 소비자단체는 "치료권을 제한하거나 분쟁을 키울 수 있다"며 절차의 공정성·신의 주체를 문제 삼는다.

제도 적용 시점과 심의 기준이 늦어질 수록 갭신 시점마다 이러한 논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대로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해지면 진료·보상 분쟁이 늘어 '민원 비용'이 다시 보험료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범퍼교환 관행에 정비 부담 늘어 수입차 확대 등으로 부품값 압박 물가 부담에 보험료 조정 딜레마 업계 "보험료보다 비용손실 시급"

◆ 첨단부품이 만든 '사고 1건당 비용'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밀어 올린 축은 사고 건수보다 '사고 1건당 비용(사고심도)'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대물배상 수리비는 약 4조 3000억원으로 이 중 부품비 비중이 48.2%로 가장 크다. 공임비(23.3%)와 도장비(28.5%)까지 합쳐 '부품+공임'이 수리비를 끌어올리는 구조가 고착화했다.

특히 경미 손상에서도 교환이 선택되

는 관행이 비용을 키운다. 2024년 범퍼 교환·수리비는 1조 3578억원으로 자동차보험 전체 수리비(7조 8423억원)의 17.3%를 차지했다. 보험연구원은 경미 손상 수리기준의 실효성을 높여 범퍼 교환 건수가 30% 줄면 전체 수리비가 6.4%(약 873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차량 믹스 변화도 사고심도를 끌어올린다. 수입차 비중이 13.3%(2024년 7월 기준)인데도 건당 수리비 지급보험금은 국산차의 2.6배, 부품비는 3.7배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은 가격이 OEM 대비 약 35% 저렴해 비용 압력을 낮출 수 있지만, 실제 사용 확산과 '절감분의 보험료 반영'은 또 다른 과제로 남아 있다.

◆ 의무보험·CPI가 만드는 딜레마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동시에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CPI) 품목이어서 보험료 조정이 곧바로 민생·물가 논쟁으로 확산된다. 금융당국은 CPI 내 자동차보험료 가중치가 3.7로 택시비(3.2), 도시철도료(2.2)보다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손보사 입장에서선 보험료를 동결하면 적자가 누적되고, 크게 올리면 물가·민원 부담이 커지는 선택지에 놓이는 셈이

다. 보험료 조정이 더딘데 비용이 빠르게 늘면 적자는 반복되기 쉽다. 노임단가 상승 같은 외생 변수까지 겹치면 손해율은 더 쉽게 치솟는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료 조정만으로 해결하기보다 비용 구조를 건드리는 개선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추석 귀경 차량 행렬.

/뉴스스



고양특례시의회 Goyang Special City Council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늘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소통과 화합,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www.goyangcouncil.go.kr

전쟁·고용쇼크·유가급등에 美 경제지표까지

금주 글로벌 변수 붓물... 변동성 주의

지난달 美 비농업 고용 9.2만명 감소
WTI 배럴 당 90.90달러... 12.1% ↑
오는 11일 美 CPI, 13일 PCE 발표
18일 FOMC 회의... 금리동결 예상

중동 전쟁과 미국 경기 둔화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과 예상 밖의 고용지표 충격이 겹치며 뉴욕 증시가 하락했고, 투자자들은 이번 주 발표될 미국 물가 지표와 통화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0.95% 하락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도 각각 1.33%, 1.59% 떨어지며 주요 지수가 일제히 약세로 마감했다. 시장을 흔든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 고용지표였다.

美 노동부가 발표한 2월 비농업 고용은 9만2000명 감소해 시장 전망치였던 5만9000명 증가를 크게 밑돌았다.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부각됐다. 고용 감소는 소비와 기업 투자 둔화 가능성을 동시에 시사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시장 충격이 컸다는 평가다.

여기에 중동 지역 군사 충돌이 겹치면서 에너지 시장도 크게 요동쳤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90.90달러에 마감하며 하루 만에 12.21% 급등했다. 이는 2023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원유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격 상승을 자극했다.



미국·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 진행 중인 지난 5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공습이 도시를 타격하면서 연기가 치솟고 있다. /AP-뉴시스

금융시장 내부 리스크도 동시에 부각됐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운용하는 일부 사모신용 펀드에서 환매제한 조치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금리 환경에서의 신용시장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다. 기술주 투자심리 역시 흔들렸다. 오라클과 오픈AI가 일부 데이터센터 확장 계획을 축소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 중심으로 매도세가 확대됐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3.93% 하락하며 기술주 약세를 이끌었다.

이처럼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기 변수, 금융시장 내부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시장의 시선은 다시 미국 경제 지표로 향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주요 물가 지표와 통화정책 이벤트가 연달아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우선 11일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첫 번째 분수령으로 꼽힌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보였지만 여전히 연준 목표 수준을 웃돌고 있어 시장에서는 물가경로가 다시 상승

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어 13일 발표되는 개인소비지출(PCI) 물가 지표도 중요하다. PCI는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물가지표로,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확인될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18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역시 금융시장에 중요한 이벤트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연준의 메시지가 글로벌 증시 방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이 경제지표와 지정학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동 지역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분석을 내놨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납사 가격 20% 이상 급등 '공급 불가항력' 확산되나

여천NCC, 고객사에 지연 통보
수급 불안에 설비 기동률 축소 검토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원료 수급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던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원료 가격 급등과 해상 운송 차질 등으로 일부 업체는 고객사에 제품 공급 지연 가능성을 통보하는 등 수급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 이후 석유화학 주요 원료인 납사(나프타) 가격은 단기간에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사는 에틸렌 등 석유화학 기초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로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해상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원료 도입 일정이 밀리고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국내 일부 석유화학 설비에서도 원료 수급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여천NCC는 최근 주요 고객사에 제품 공급 지연 가능성을 통보하고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 정세 악화로 원료 나프타 도입이 지연되면서 원자재 확보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공동 투자한 국내 최대 규모 에틸렌 생산 설비 가운데 하나로 연간 약 229만톤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원료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일부 설비의 기동률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불가항력은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울 때 책임을 면제받기 위한 조치로 공급 차질이 예상될 경우 고객사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여천NCC를 시작으로 공급 불가항력 선언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의 원유 수입 가운데 약 70%가 중동에서 들어오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 물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된다. 해협 통행이 장기화될 경우 원료 수급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들여오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평가다. 운송 거리와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일부 물량을 러시아에서 도입해 의존도를 분산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 역시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보유한 원유 비축 물량이 일정 부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생산 차질 가능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원유의 약 70%가 중동에서 들어오는 만큼 유조선 운항이 막히면 원유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정유 공정이 멈추면 그 과정에서 생산되는 납사를 사용하는 석유화학 산업도 사실상 멈추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

AI, 군사작전 활용... 윤리성·딥페이크 등 논란

자율살상·대중감시 가능성 제시
여론·심리전 노린 딥페이크 영상

미국과 친이란 세력간의 군사적 충돌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을 둘러싼 논란이 기술 업계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AI가 실제 군사작전에 활용되면서 전쟁 수행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가운데 감시와 자율살상 무기, 알고리즘 의사결정 등 민감한 문제가 이슈로 부각된 것이다.

8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근 미국의 대이란 군사 작전을 계기로 AI 활용을 둘러싼 논쟁이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군사 기술의 윤리적 사용 문제부터 전쟁 상황을 악용한 딥페이크 확산까지 다양한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는 양상이다.

이번 작전에서 AI의 군사 활용은 특히 두드러졌다. 엔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는 팔라티어의 국방 플랫폼에 통합돼 미군 기밀망에서 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모델은 위성 사진과 감청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이란 지도부의 동선을 추적하고, 타격 시 발생할 부수적 피해까지 계산해 지휘관의 결정

을 지원했다. 실리온밸리는 즉각 강한 반발을 보였다. AI의 자율살상 무기(LAWS) 활용과 대규모 감시 시스템으로의 확장은 AI 기술 윤리성을 무너뜨린다는 주장이다. 오픈AI의 로보틱스 책임자 케이틀린 칼리노브스키는 미 국방부와 계약 체결 일주일 만인 7일(현지시간)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인간의 승인 없는 자율살상과 사법적 통제 없는 대중 감시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픈AI가 국방부와 기밀 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미국 내 챗GPT 앱 삭제 건수는 하루 만에 295% 급증했다. 구글과 오픈AI 직원 약 900명도 군의 AI 활용 확대를 제한해야 한다는 공개서한을 발표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엔트로픽 역시 자사 모델 '클로드'의 군사 활용 범위를 두고 국방부와 갈등을 겪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엔트로픽은 지난해 약 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쟁부 AI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했다. 그러나 엔트로픽이 자사 모델의 자율살상 무기(LAWS) 활용 및

대규모 감시 오용에 반대하며 '윤리적 자율성'을 끝내 고수하면서 정부의 '합법적 모든 용도 활용' 원칙과 충돌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엔트로픽을 '공급망 위협' 기업으로 지정하고 연방 기관에 기술 사용 중단을 지시했으며, 국방부는 국가안보법을 근거로 해당 회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엔트로픽은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전쟁 상황을 악용한 딥페이크 확산도 또 다른 문제로 떠올랐다. 최근 SNS에서는 미국 항공모함 침몰이나 중동 미군 기지 파괴 장면을 담은 영상이 빠르게 퍼졌지만 상당수가 AI로 생성된 가짜 콘텐츠로 확인됐다. 어린이 장례식이나 학교 폭력 장면처럼 연민을 자극하는 영상도 여론전과 심리전을 노린 딥페이크 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제는 이러한 가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일부 플랫폼은 AI 생성 영상에 표시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영상 속 세부적인 결함을 직접 확인해 판단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zelkova@metroseoul.co.kr



m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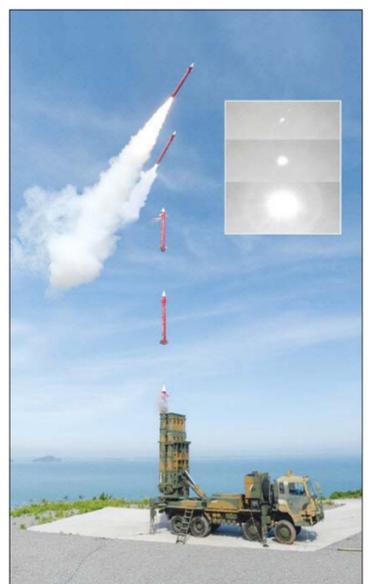
'천궁-II' 성능 입증... 추가 수출기회 확대

UAE, 천궁-II 포대 조기 공급 요청
K9 자주포 등 계약 속도 가능성도

중동 전쟁 확산으로 한국산 방공무기 '천궁-II'를 앞세운 K방산의 수출 기회가 커지고 있다. 걸프 지역 내 방공 수요가 급증한데다 지상전확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천궁-II를 비롯해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K2 전차, KF-21 전투기 등 국내 무기체계 전반으로 수출 논의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는 최근 한국 정부에 천궁-II 포대의 조기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이 걸프 지역 미군 시설을 겨냥한 보복 공격을 이어가자 방공망 보강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UAE는 2022년 LIG넥스원-한화시스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천궁-II 약 10개 포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일부 포대는 현지에서 실전 배치된 상태다. 최근 이란의 대규모 공습 대응 과정에서 천궁-II가 약 96%의 요격 성공률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성능이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iM증권 변용진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UAE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와 계약한 천궁-II 인도 일정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국은 지난 2022년 UAE, 2024년 사우디, 2025년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II' 사격 이미지. /LIG넥스원

이라크와 각각 약 4조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관련 물량은 올해부터 납품이 본격화해 2030~2034년까지 순차 인도될 예정이었다. 변 연구원은 천궁-II 추가 발주와 함께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등 지상 무기체계 계약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장거리 요격 체계인 L-S AM까지 수출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metro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딥테크 스케일업 펀드 #로봇편

KB의 생산적금융, 모두의 미래를 바꿀 로봇 기술 혁신과 함께합니다

로봇과 한 팀이 되어 축구 경기를 하는 세상, 상상해 본 적 있나요?

KB금융그룹은 딥테크 스케일업 펀드를 통해 인류의 안전하고 유능한 협력자가 될 로봇 기술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로봇 기술 혁신, KB금융그룹이 함께합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2026년 7월, 인천 송도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AI·인공지능 로봇 경진대회인 'RoboCup 2026 Incheon'이 개최됩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드는 KB의 생산적금융

KB딥테크 스케일업 펀드 결성

첨단기술 분야를 지원하는 1,600억 원 규모 펀드를 결성하여 차세대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안우이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금융주선

'국민성장펀드 1호'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금융주선 사업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금융주선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사업의 금융주선 사업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KB 생산적금융



KB금융그룹은 2030년까지 총 110조 원 자금 공급을 통해 국가 전략 산업과 서민 취약 계층을 동시에 지원하며 '미래 산업 육성'과 '금융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KB KB금융그룹

정부 경고에도 치솟는 유가... 최고가격제 도입 초읽기

오늘 경제점검회의서 대응책 논의
석유 최고가 지정 실무 검토 착수
정유업체 '횡재세' 도입 주장도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 급등에 고강도 대책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동 정세가 급변하면서 유가가 급격히 오르는 가운데,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연다. 중동 상황과 관련해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내일(9일) 오전 11시 중동 상황과 관련해 경제 및 물가 상황 점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열리는 비상경제점검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예산처,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연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열린 2026년 준장진급 장성 삼정검 수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인해 유가 등 생활물가 불안정에 대응할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유가 급등한 데 대해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갑자기 소비가격 자체가 폭등하는 것은 국민들이 겪는 국가적 어려움을 이용해 자기 이익만 보려는 태도"라며 "휘발유 가격에 바가지

를 씌우는 행위에는 엄중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정유·주유 업계의 가격 담합 및 매점매석 의혹을 지목한 것은 '불공정한 폭리 추구 행위'를 차단해야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통상적으로 국제 유가는 국내 석유류 가격에 통상 2주의 시차를 두고 반

영됐는데, 이번엔 시차 없이 반영된 상황인 점을 엄중하게 본 셈이다. 국내에 비축된 유류는 이란 사태 이전에 구입했음에도, 가격을 바로 올리는 것은 불공정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 23조를 근거로 석유 최고가격 지정 고시를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석유 가격이 현저히 등락해 국민 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산업부 장관이 판매 가격의 최고액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대통령의 경고에도 전국 주유소 기름값은 아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유가정보시스템 오픈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4.86원으로, 전날보다 5.46원 올랐다.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1723원이었던 기름값이 5일 만에 172원이 오른 셈이다. 다만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과 '바가지 요금' 단속 검토 예고에 따라 상승세는 어느 정도 둔화된 모양새다.

그러나 여전히 오르고 있는 유가를

감안하면, 정부가 실태 조사와 최고가격제 시행을 넘어 궁극적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도 높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담합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을 원칙으로 세운 바 있다. 이에 최근 정부가 밀가루·설량 등 식료품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주장했던 '횡재세' 도입 주장도 나온다. 석유사업법 18조엔 석유 가격 등락으로 많은 이윤을 얻은 석유 관련 기업에 정부가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이유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정유업체로부터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는 게 2023년 당시 현재의 여론을 중심으로 나온 주장이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과도한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은 유럽 등에서 채택하는 횡재세만큼은 아니더라도 부담금 등을 통해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해줬으면 좋겠다"며 해당 의제를 꺼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국힘, '한국시리즈식 경선' 놓고 시끌

공관위, 청년 등 정치신인 발굴 시도
"오세훈 서울시장 탈락 겨냥" 비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룰을 발표하고 있다. 이 중 현역·비현역 분리 경선, 이른바 '한국시리즈'식 경선에는 특정 인물을 노린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지난 5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현역 자치단체장이 아닌 후보들끼리 예비 경선을 치른 뒤, 최종 경선에 오른 후보가 현역 단체장과 1대1로 맞붙는 방식의 경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프로야구 KBO리그 결승전인 '한국시리즈'에서 착안한 방식으로, TV 예능프로그램인 '복면가왕' 등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차 경선을 통해 1명의 최종 후보가 선출되면 마지막 단계에서 현역 단체장과 결선을 치르는 것이다.

당 공관위는 청년과 여성 등 정치 신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관위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인 발굴을 위한 시도라는 입장이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현역은 기본적으로 당 조직과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어 신인들이 현역을 넘겨 어렵다"며 "새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결정이자 신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선을 거치고 올라온 인물이 현역과 '1대 1'로 겨루는 것은 현역에게만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이정현 위원장은 현역 광역단체장들에게 단수공천을 기대하지 말라며 '물갈이 공천'을 예고한 상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현역과 신인이 1대 1로 붙으면 현역이 손쉽게 이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역은 '1대 다(多)' 구도에서 더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역과 신인의 여론조사·당원 투표 비중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신인이 청년·여성 가산점을 받는다면 현역이 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국민의힘 당원 지형이 극단화됐다고 가정하면, 현역 단체장 중 일부는 당원 투표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 특정 인물을 탈락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미다.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계엄 사과와 '절운'(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을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운 이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룰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서예진 기자

정청래 "6·3 지선 승리 선봉장될 것"

"대표 권한인 전략공천 하지 않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승리가 지상과제"라면서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8일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당원 주권정당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강력한 개혁 당대표로서 개혁에 매진했다면, 이제부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선봉장이 되겠다"며 "당 대표인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당 대표 권한인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그러면서 "저는 '윤어게인' 세력들의 발호에 맞서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반민주 세력임을 끊임없이 지적했고, 위헌 정당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수차례 강조했다"며 "지방선거 승리로 내란을 청산하고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역을한 컷오프·부적격자 공천·낙하산 공천·부정부패 공천'이 없는 '4무(無) 공천'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이어 "가장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 가장 공정한 당원주권 공천, 가장 투명한 열린 공천, 가장 빠른 공천이 될 것"이라며 '4강(強) 공천'도 내세웠다.

정 대표는 전반적인 지방선거 공천에 관해 "4월 20일까지 공천을 완료하겠다. 아마 제 지역으로는 사상 가장 빠른 공천일 것"이라며 "가장 경쟁력 있는 최적의 후보를 배출하고 모두가 승복하는 경선 결과를 만들겠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인천시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강원지사·경남지사 후보는 단수공천을 했다.

다만 정 대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목표는 가급적이면 많은 지역에서 이기는 것 아니겠나. 이기는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1인 1표제 도입과 상향식 공천 제도의 확립으로 줄 세우기 공천이 완전히 근절되고 계파 공천, 계파 정치도 해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리당원보다 대의원의 투표에 더 비중을 뒀던 것을 폐지한 것을 '1인 1표제'라고 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시절에 본격적으로 꺼내든 의제이며, 정청래 대표가 관철시켰다.

정 대표는 "이번 지선은 무엇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중요하다"며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 대통령이 더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자'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 통합에 대해서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혼란과 혼선을 불러일으킨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예진 기자

신동욱·나경원, 서울시장 불출마 선언

국민의힘 윤희숙·이상규 공천 신청
오세훈 "당 선거방침 재검토하자"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나경원 의원이 8일 이번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의 수도권 선거 방침을 근본부터 재검토하자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을 지역 초선인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지금은 나아가기보

다 잠시 멈춰서서 당에 헌신하는 길을 찾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경원의원도 이번 서울시장 경선에는 출마하지 않을 방침이다. 나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의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 정신으로 헌신할 각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는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과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 접수를 하루 더라도 치열한 끝장 토론을 하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호소했다.

오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지 않는 이상 후보 접수와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현상에서의 경선은 많은 지역에서 노선 갈등으로 이어져 본선 경쟁력의 차감한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모두를 위한 금융, 함께 가는 성장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모두의 희망이 하나로 모여 따뜻한 내일로 나아갑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진심이 담긴 포용 금융으로 손님의 성장을 이어갑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증부대출

금융취약계층
자립 지원

지역
골목상권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 금융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포용 금융 지원 • 서민·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 금융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정책영향, 실거래가 10억 하락… 매도 대신 증여 하기도”

부동산 현장 르포

강남·송파 가보니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2주 연속 하락하면서 집값 조정 흐름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첫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5주 연속 둔화했다. 강남구(-0.07%), 서초구(-0.01%), 송파구(-0.09%), 용산구(-0.05%) 등 핵심 지역은 2주 연속 하락했으며 특히 강남·송파·용산은 전주보다 낙폭이 컸다.

실거래가가 크게 떨어진 사례도 나타난다.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 전용 183㎡는 지난해 12월 128억원에 거래됐으나 올해 1월 110억원으로 내려왔고 현재 최저 호가는 90억원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송파구 잠실 ‘헬리오시티’ 전용 84㎡ 역시 올해 초 31억원대에 거래됐지만 최근 27억원대 매물이 등장했다.

◆ 강남 아파트값 체감 10~15% 조정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급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조정이 이뤄지는 모습이다.

현장 중개업소에서는 최근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평균적으로 약 10~15% 조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는 “집을 빨리 팔아야 하는 다주택자가 가격을 낮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단지 전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헬리오시티’ 아파트 전경. /성채리 인턴기자

강남 압구정 신현대 전용 183㎡ 12월 128억→최저호가 90억 초반 송파 헬리오시티 ‘급매’ 물건 등장 가격 내렸지만 폭락·매물급증 아나 한강벨트·중상급지 중심 가격조정 아파트 가격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

거래하면 다른 매도자도 기존 시세를 고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책 영향으로 실거래가가 10억원가량 낮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매매가가 100억원을 넘어가면 호가도 10억원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최고가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단지 특성상 매물이 대폭 늘어나기 어려운 점도 있다. ‘S’부동산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다주택자

대부분은 조합 설립 이전에 이미 집을 팔았다”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 이후 어떤 동·층을 배정받느냐에 따라 가격 격차가 커 한강 조망이 가능한 ‘로열층’ 매물은 저층보다 10억~20억원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

◆ 잠실 ‘급매’ 등장… ‘폭락·매물 폭증’까진 아냐

잠실 일대 역시 비슷한 분위기다. 급매가 등장하면서 가격이 내려가긴 했지만 ‘폭락’이나 ‘매물 급증’까지는 아니라는 반응이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는 ‘급매’ 물건이 등장했다. 매매가 대신 ‘사무실 방문 상담’이라는 안내가 붙은 매물도 눈에 띄었다.

송파역 인근 ‘M’부동산대표는 “전용 84㎡는 최근 27억5000만원에 거래됐고 저층 급매는 25억원대 후반 매물도 나오고 있다”며 “다주택자 매도 상담이 늘었다”고 말했다.

다만 통계나 일부 거래 사례만으로 시장 상황을 단정짓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같은 매물이 여러 중개업소에 중복 등록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보다 매물이 많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상담이 거래로 이어지는 사례는 제한적이다. 2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대출이 1~2억원에 그쳐 상당한 현금 여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매수자들은 추가 하락 가능성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분위기다.

다주택자의 고민도 깊어졌다. 잠실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세금이 3~4억원 수준이면 내고 팔겠지만 계산해보니 8억원이라 매도를 망설이더라”고 전했다. 매수자와 눈치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가격이 낮아진 시점에 증여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다.

◆ 한강벨트 거쳐 외곽으로 확산될까 한편 뚜렷한 강남권 집값 하락세가 한강벨트를 거쳐 외곽으로 확산될 수 있다

는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으로 한 주 동안 서울 25개 자치구의 매물이 모두 늘었다. 특히 마포구, 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현장에서는 외곽 지역까지 가격 하락이 본격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성동구 금호역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대출이 가능한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이 구간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별 가격 방어선이 존재한다고 “강남이나 한강벨트 집값이 내려가도 외곽 지역에서 오르면 가격 격차가 유지되기 때문에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어렵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3월 말~4월 초가 단기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토지거래허가 등 절차를 고려하면 계약을 미리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중개업자는 다주택자가 유예 기간까지 매도하지 않으면 이후 매물이 오히려 잠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강남 등 핵심 지역의 가격 조정이 한강벨트와 중상급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급격한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전월세 수요가 견조한 중저가 지역은 실수요와 임대 수익이 완충 역할을 하면서 완만한 조정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증시 머니무브 막아라”… 금융권, 3%대 예·적금 출시

하나·국민·우리, 정기예금 2% 후반 NH농협 ‘NH올원e예금’ 3.05%로

금융권에도 연 3% 대 예·적금이 출시되고 있다. 증시 상승세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자 은행들이 ‘머니무브’를 막기 위해 예금 금리를 잇따라 올린 영향이다. 은행들이 앞다투어 예금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자금 흐름의 방향이 뒤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소폭 인상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하나의 정기예금’ 최고 금리를 기존 2.85%에서 2.90%로 5bp

(1bp=0.01%) 올렸다. 국민은행도 지난달 19일 정기예금 금리를 2.80%에서 2.90%로 10bp 인상했고, 우리은행 역시 지난달 22일 5bp 올려 최고금리를 2.90% 수준으로 맞췄다.

시중은행 가운데서는 NH농협은행이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대표 정기예금 상품인 ‘NH올원e예금’과 ‘NH왈츠회전예금2’의 1년 만기 최고금리를 최근 3.05%로 인상했다.

예금 금리를 올리는 배경에는 은행채 금리가 인상한 영향이 가장 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 1년물(AA·무보증) 금리는 2월 초 2.980%에서 2월말 2.900%로 떨어졌지만 이달 6

일 기준 2.943%로 올랐다.

또 최근 증시가 단기간 급등한 뒤 조정기에 들어가고, 대외 변수 영향으로 변동성까지 확대되자 고객 선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증시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개인 매도 거래량은 지난해 1월 6조87억원에서 올해 1월 7조7902억원으로 1조7815억원 증가했다.

반면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올해 2월 말 기준 946조8897억원으로 전월 말(936조8730억원)보다 10조167억원 늘었다. 지난해 11월 말 971조9897억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25조1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은행들이 증시 조정기에 유입된 대기 자금을 선점해 장기예금으로 묶어두려는 전략이다.

한편 현재 1금융권에서 금리가 가장 높은 예금 상품은 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연 3.05%)’이다. 뒤이어 전북은행의 ‘JB다이렉트예금통장’과 케이뱅크의 ‘코드K정기예금’이 연 3.01% 금리를 제공한다.

적금상품은 12개월 만기로 설정한 경우 수협은행의 ‘Sh해양플라스틱Zero!적금’이 연 3.65%로 가장 높다. 케이뱅크의 ‘코드K자유적금’은 연 3.40%를, 카카오뱅크의 ‘카카오뱅크 자유적금’은 연 3.15%를 제공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女 리더, 성과로 검증 금융, 인생케어 역할”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사진)이 “여성 리더들은 성별이 아닌 능력과 성과로 검증된 존재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금융도 이제 상품 판매를 넘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케어하는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지난 6일 열린 ‘그룹 신입 여성 부점장 컨퍼런스’를 통해 “AI 시대일수록 중요한 것은 사람 사이의 소통과 공감이며, 이러한 포용적 리더십을 통해 금융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컨퍼런스는 올해 새롭게 선임된 그룹 주요 계열사 여성 부점장을 축하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여성 리더로서의 역할과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양종희 회장과 신입 여성 부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KB금융은 선배 여성 임원들이 신입 부점장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며 여성 리더로서의 경험과 조언을 나누는 ‘선배와의 대화’를 시작으로 양 회장이 신입 부점장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그룹 CEO와의 대화’ 순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사진)이 “여성 리더들은 성별이 아닌 능력과 성과로 검증된 존재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금융도 이제 상품 판매를 넘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케어하는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금융권 대출 감소… 온투업 중심 시장 확대

대출시장 제도권→플랫폼 기반 재편 지난달 46개 온투업 대출잔액 1.7조

정부의 가계대출 강화 기조로 제2금융권 대출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을 중심으로 대출 시장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시장이 전통적인 제도권 금융에서 플랫폼 기반으로 재편되는 모습

이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46개 온투업체의 대출잔액은 1조7401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체 수가 더 많았던 전년 동월(51개사, 1조1328억원) 대비 약 54% 확대됐다.

상품별로는 기타 담보와 부동산 담보 대출이 전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달 부동산 담보 대출 잔액은 약 6700억원대로 지난해 1월

(5861억원)보다 14%가량 증가했다.

일명 P2P 금융으로 알려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투자자와 대출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다. 투자자가 빌려준 자금으로 대출이 이뤄지면, 이에 따라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를 다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진다.

중간 신용등급 차입자는 온투업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중금리 대출 상품을 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 동시에 투자자는 다양한 유형의 상품에 쉽게 투자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대출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제2은행권, 특히 저축은행업권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실제 저축은행의 부동산 담보 대출 총액은 지난해 3월 말 27조7361억원에서 6월 말 26조6366억원, 9월 말 25조7772억원으로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안상미 기자 smahn1@

LG전자, 중남미 특화가전 공개 글로벌 사우스 시장 공략 박차

‘이노페스트 2026 중남미’ 행사
신제품 정보·사업 전략 등 공유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

LG전자가 현지 맞춤형 신제품 라인업을 앞세워 글로벌 사우스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지난 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멕시코 칸쿤에서 ‘LG 이노페스트 2026 중남미’ 행사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LG 이노페스트는 주요 유통 고객들을 초청해 올해 신제품 정보와 사업 전략을 공유하며 협력을 다지는 행사다. 지난달에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중동·아프리카 이노페스트를 열기도 했다.

이번 이노페스트에서는 중남미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현지 특화 제품을 대거 소개해 거래선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먼저 탑로드 세탁기(통돌이 세탁기)를 선호하는 현지 소비 패턴을 반영해 중남미 고객의 신체 조건에 최적화된 신제품을 선보였다. 현지 고객의 평균 신장과 팔 길이를 고려한 인체 공학 설계로 고객이 허리를 깊이 숙이지 않고 쉽게 세탁물을 꺼낼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선보인 핏앤맥스 냉장고는 제품과 벽 사이 틈을 최소화해 설치 공간



LG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멕시코 칸쿤에서 중남미 주요 유통 거래선을 초대해 신제품 정보 및 현지 사업 전략을 소개하는 ‘LG 이노페스트 2026 중남미’ 행사를 개최했다. LG전자 직원이 유통 거래선 고객에게 중남미향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대비 내부 용량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으로, 도시화로 인해 주거 공간 면적이 축소되고 있는 현지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이다.

빠르게 늘고 있는 현지 프리미엄 가전 수요를 겨냥해 복합형 세탁기 라인업도 늘렸다. 27인치(가로폭 기준) 위시콤보는 인버터 히트펌프 기술을 적용해 뛰어난 에너지 효율로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해결한다. 일체형 세탁건조기 위시타워는 기존 24·27인치 라인업에 25인치 모델과 LCD 제어판을 적용한 27인치 제품을 추가하며 선택의 폭을 넓혔다.

건설사 및 인테리어 사업자 등 기업 간

거래(B2B) 고객을 위한 빌트인 솔루션도 눈길을 끌었다. LG전자는 초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SKS를 필두로, 중남미 현지 주거 트렌드와 공간 구조에 최적화된 빌트인 가전 패키지 등을 폭넓게 구성해 현지 B2B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LG전자 중남미지역대표 송성원 전무는 “현지 고객의 생활 방식과 니즈에 정확히 부합하는 맞춤형 제품을 앞세워 글로벌 사우스의 한 축인 중남미 시장에서 고객과 파트너사의 신뢰를 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中, 전기차 초고속 충전 승부수 韓, LFP 등 기술대응 이목집중

BYD,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 공개
9분만에 97% 충전... 세계 신기록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을 타개하고 분위기 반전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하는 가운데 배터리 기술 강화로 주춤했던 충전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이 관심을 끌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기차 제조사 비야디(BYD)는 지난 6일 9분만에 97%까지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시스템을 6년 만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는 충전 속도 부문에서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다. 배터리 잔량(SOC) 10%에서 70%까지 단 5분 만에 충전이 가능하며, 9분이면 97% 충전이 가능하다. 특히 영하 3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20%에서 97%까지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상온 대비 단 3분 차이에 불과하다.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는 1세대 대비 에너지 밀도를 5% 높이면서 충전 속도 역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데 성공했다.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한 텐자 Z9GT는 BYD의 경량화 차체 기술과 결합해 동급 최고 수준인 1036km의 주행 거리를 실현했다.

배터리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안전성도 확보했다. 내부 발열을 최소화하고 방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리튬이온 고속 통로’와 ‘전방위 지능형 열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안전이 친환경차의 진정한 사치’라는 BYD의 철학을 반영한 설계다.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는 중국 국가 표준을 상회하는 엄격

한 안전 테스트를 통과하며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초고속 충전기술이 실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충전인프라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BYD는 이를 위해 ‘FLASH 충전기’를 함께 공개했다.

FLASH 충전기는 단일 커넥터 기준 최대 1500kW 출력이 가능한 초고속 충전시스템이다. 여기에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ESS)를 결합해 전력망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BYD는 중국 전역에 2만개 규모의 FLASH 충전소를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2026년 말까지 글로벌시장에도 해당 충전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BYD의 초고속 충전을 완벽히 지원할 수 있는 메가와트급 충전 인프라 구축이 기술 보급의 핵심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BYD의 기술 혁신으로 한국 산업계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020년 발표한 800V 전력 시스템 기반 E-GMP 플랫폼의 빠른 충전 속도와 월등한 가속 성능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당시 E-GMP를 적용한 전기차는 350kW급 전력을 받아들이며 배터리의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30분 내외에서 18분으로 단축했다. 그러나 BYD가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 공개로 분위기 반전에 나서고 있어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삼성SDI·SK온)가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LFP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성문 기자

박정원, 건설장비 ‘AI·무인화’ 전략 점검

(두산그룹 회장)

美 ‘콘엑스포 2026’ 현장 참여
“차별화 AI 기술로 시장 선도해야”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두 달 만에 다시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찾아 건설장비 시장의 인공지능(AI) 기술 흐름을 점검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8일 두산에 따르면 박정원 회장은 라스베이거스에서 3~7일(현지시간)까지 열린 북미 최대 건설장비 전시회 ‘콘엑스포(CONEXPO) 2026’에 방문했다. 지난 1월 CES, 2월 국내 주요 사업장 방문에 이은 현장경영의 일환으로 그룹 핵심사업 중 하나인 건설장비 부문의 경쟁력을 점검하기 위한 행보다.

박 회장은 이날 두산밥캣과 두산모터를 부스를 방문한 데 이어 글로벌 경쟁사 전시관도 둘러보며 AI 기반 생산성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가운데)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콘엑스포 2026’ 현장을 찾아 두산밥캣의 미니트랙로더에 탑승해 스카트 박 두산밥캣 부회장(왼쪽)의 설명을 듣고 있다. /두산

향상과 무인화 기술 상용화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건설장비 시장의 AI 기술 변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

냈다.

박 회장은 “건설장비와 작업 현장에 적용되는 AI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하드웨어 기술력을 중요하게 여기던 건설장비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며 “오랜 업력을 통해 축적한 두산밥캣의 독보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AI 기술을 내놓으며 건설장비의 미래를 제시하고 시장을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두산밥캣은 ‘콘엑스포(CONEXPO) 2026’에 참가해 AI·전동화·자율화 기술이 집약된 소형 로더, 굴착기 등 30여종의 첨단 제품을 선보였다. 핵심 제품군인 소형 로더 라인업을 보급형 ‘클래식’과 고급형 ‘프로’로 이원화하는 브랜드 전략도 처음 공개했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전자,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 1위

프리미엄 시장 매출 점유율 54.3%

삼성전자가 2025년 글로벌 TV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며 20년 연속 세계 선도 자리를 지켰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가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TV 시장에서 매출 기준 29.1%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2006년 이후 20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1위 자리를 지키게 됐다.

특히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2500달러 이상 TV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Neo QLED, OLED, 라이프스타일 TV 등을 중심으로 매출 점유율 54.3%를 기록했다. 1500달러 이상 시장에서도 52.2%의 점유율을 나타내며 선두를 유지했다.

삼성전자는 2006년 ‘보르도 TV’를 출시하며 글로벌 TV 시장 1위에 처음 올랐다. 당시 보르도 TV는 하단 스피커 배치와 곡선형 디자인, 붉은색 포인트 등을 적용해 기존 제품과 차별화를 시도한 모델로 평가받았다.

이후 삼성전자는 주요 기술 변화에 맞춰 제품군을 확대해왔다. 2009년에는 LED TV를 선보이며 시장의 세대 전환 흐름에 대응했고, 2011년에는 스마트 TV를 출시해 TV의 활용 범위를 넓혔다. 2015년 ‘더 세리프’, 2017년 ‘더 프레임’



삼성전자가 20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1위를 달성했다. /삼성전자

등 라이프스타일 TV를 내놓으며 인테리어 수요에도 대응했다.

화질 경쟁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QLED TV, 8K TV, 마이크로 LED 등 프리미엄 제품을 잇달아 선보였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능을 강화한 TV 제품군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24년 업계 최초 인공지능(AI) TV 출시를 기점으로 2025년에는 사용자 맞춤형 AI 플랫폼인 ‘비전 AI 컴패니언(VAC)’을 고도화해 지능형 TV 시장을 선점했다.

올해는 프리미엄 제품군을 더 넓히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RGB(빨강·초록·파랑) TV를 새롭게 확대하고, OLED와 Neo QLED를 포함한 프리미엄 라인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니 LED 등 보급형 제품군도 확대해 시장 대응 폭을 넓힐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HD현대일렉, 북미 생산법인 2공장 착공

2억달러 투자... 생산능력 50% 확대

HD현대일렉트릭이 북미 생산법인 증설에 착수하며 북미 초고압 변압기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HD현대일렉트릭은 6일(현지시간)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에 위치한 북미 생산법인(HD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에서 제2공장 기공

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제2공장은 북미 생산법인 부지 내 2만9000㎡(약 8800평) 규모로 조성되며 내년 4월 준공될 예정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약 2억달러를 투자해 초고압 변압기 생산능력을 기존 대비 50% 확대하고 미국 내 초고압 송전망 구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765kV급 초고압 변압기 시험·생산 설비를 구

축할 계획이다. 공장 준공 이후에는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북미 생산법인은 현지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제2공장을 성공적으로 완공하고, 올해 9월 완료 예정인 울산공장 증설과도 시너지를 내 북미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로보택시, 사람과 AI 경계 허무는 중요한 전환점 될 것”

메트로가 만난 기업인

김기혁
에스더블유엠 대표

“사람과 AI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로보택시’다. AI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됐다면 로보택시도 운행할 수 있다. 한때는 한국에서 금기어가 됐던 ‘로보택시’가 내 옆으로 더욱 바짝 다가오고 있다.”

김기혁 대표(사진)가 이끌고 있는 에스더블유엠(SWM)은 2024년 9월26일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17.9㎢ 구역에서 3대의 로보택시를 운행하며 빅데이터를 쌓아왔다. 시범서비스인 만큼 운행시간은 평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였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안전요원도 운전석에 탑승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로보택시가 다닌 강남역, 압구정역, 선정릉역, 양재역, 청담역 등은 도로가 혼잡하고 새벽이지만 차량도 많은 험로였다.

이때문에 사고에 대한 우려, 신호 준수 오류, 낮은 이용률 등 주변에서 보내는 시선은 걱정 투성이었다.

로보택시를 우리보다 앞서서 도입해 운행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대한민국 강남에서 다니는 ‘한국형 로보택시’에 대해 예의주시했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3대의 차량이 총



7000건이 넘는 콜을 소화했다. 강남 자율주행 운영구역에서 운행한 거리가 13만km를 넘어섰다. 당초엔 위험한 것을 누가 이용하겠느냐고 걱정했지만 기우였다. 이용률은 일반 택시보다 더 높았다.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7점으로 오히려 택시보다 더 높게 나왔다. 시민들의 수용성이 예상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운행 기간 동안 사고 등 우려했던 일도 없었다.

김 대표는 “상대편 차량의 잘못으로 인해 일부 급행사고가 난 것만 빼면 사고가 전무했다. 로보택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요원이 수동운전을 한

것을 제외하면 100% 자율주행으로 운행하고 있다. 손님들로부터 콜을 받고 13만km를 넘게 운행하는 동안 데이터도 많이 쌓였다. 택시기사들도 로보택시가 단거리만 운행하다보니 교통 분담효과가 있다며 오히려 좋아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에서 엔비디아(NVIDIA), 레노버(Lenovo)와 전략적 협력을 체결했다. 한국에 있는 벤처기업이 이들 글로벌 기업과 ‘AI 동맹’을 맺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다.

“

24년부터 강남·서초 일대서 운영 3대의 로보택시로 빅데이터 축적 콜 7000건 넘고, 13만km 이상 운행 무사고·높은 만족도로 수용성 확인

엔비디아·레노버와 손잡고 AI동맹 택시업계와 한국형 상생모델 추진 로보택시 외면하면 韓 경쟁력 퇴보

”

에스더블유엠은 개발 예정인 플랫폼을 올해 출시할 자사의 레벨4(Lv4) 로보택시에 탑재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우리의 로보택시 기술은 미국, 중국과 비교해 약 3년 정도 뒤쳐져 있다. 물론 따라가기위해선 꼭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빠르게 따라가는 방법은 AI밖에 없다. 그래서 엔비디아 등과의 동맹이 중요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한국기업으로서 처음으로 AI 자율주행 글로벌 생태계에 들어가 다양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향후 기술 확보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올해 초엔 서울특별시택시

운송조합과 손잡고 로보택시 대중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형 로보택시 상생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서울에 있는 7만대 정도의 택시 가운데 2만대 가량이 법인택시다. 법인택시 운전 수요가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에서 로보택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회사와 택시 회사들이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이 많다. 로보택시 도입 과정에서 택시기사들에게도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때 금기어였던 로보택시가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정부도 관련 규제 개선에 상당한 공을 들여 걸림돌도 많이 해소됐다.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는다. 로보택시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 중국에 이어 글로벌 3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한국에서 성공해 아직 로보택시를 생각하지 못하는 일본, 독일 등으로 관련 기술을 수출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 사회가 로보택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분명 퇴보할 수밖에 없다.”

에스더블유엠은 현재 시리즈 C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김 대표는 현재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이사 등도 겸임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배터리업계, AI 안전관리·패키징 고도화 경쟁

주요 배터리사, ‘인터배터리’ 참가
삼성SDI ESS 화재예방 SW SBI
AI 기반 배터리 이상 징후 사전 탐지
SK온 CTP·액침냉각 패키지 전시
팩 단위 포트폴리오 확장 본격화

삼성SDI, SK온 등 주요 배터리사들이 인터배터리 2026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관리 시스템과 배터리 패키징 고도화 기술을 선보인다.

8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는 오는 11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6’에서 ESS용 화재 예방 소프트웨어 ‘삼성 배터리 인텔리전스(SBI)’를 처음 공개한다.

SBI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배터리 상태 이상 징후 등 전반적인 배터리 ‘건강’을 진단하고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탐지·예측하는 프로그램이다. 삼성SDI가 국내외 1400개 이상의 ESS 사이트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축적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독자 알고리즘을 통해 배터리 수명과 출력 등을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체 개발한 ‘상태 진단 지표’를 기반으로 노화 속도 편차와 출력 안정성 등 운영 품질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잠재적 이상 셀을 식별해 종합적인 배터리 건강 진단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객은 사고 예방과 함께 운영·유지보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삼성SDI는 하드웨어 안전 기술인 ‘모듈 내장형 직분사(EDI)’와 ‘No TP(No Thermal Propagation)’에 지능형 안전 시스템 ‘SBI’를 결합해 ESS 배터리 안전 관리 기술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국내 중앙계약시장에 공급되는 ‘SBB(Samsung Battery Box) 1.5’에 우선 적용한 뒤 SBB 전 제품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SK온도 인터배터리 2026에서 셀투팩(CTP) 기술과 액침 냉각 기술을 결합한 배터리 통합 패키지 솔루션을 소개한다. 기존 셀·모듈 중심의 공급 구조에서 팩 단위까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전시에서는 ▲파우치 CTP ▲파우치

통합 각형 팩 ▲대면적 냉각기술 CTP 등 CTP 기반 패키지와 ▲셀-모듈-팩(Cell-Module-Pack) 구조의 CMP 패키지를 선보인다.

파우치 CTP는 모듈을 제거하고 셀과 팩을 직접 통합해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서도 제조 원가를 낮춘 구조다.

파우치 통합 각형 팩은 알루미늄 각형 케이스에 파우치 셀을 직접 적용해 부품과 공정을 줄이면서 외부 충격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했다. 대면적 냉각기술 CTP는 파우치 셀 배열 시 넓은 면 전체에 알루미늄 냉각 플레이트를 직접 결합하는 방식으로 열관리 효율을 높인 기술이다.

/원관희 기자 wkh@



에이스침대 봄맞이 온라인 웨딩 기획전.

에이스침대

예비·신혼부부 겨냥
온라인 웨딩 기획전

침대 베스트셀러 10종·구매혜택 마련

에이스침대가 봄을 맞아 예비·신혼부부를 위해 에이스침대에서 온라인 웨딩 기획전을 이달 31일까지 실시한다.

8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기획전은 1인용과 2인용 베스트셀러 침대 10종을 세분화해 구성했다.

1인용 침대는 우아한 템바보드 디자인과 모듈형 프레임으로 감성과 공간 활용도를 모두 갖춘 ‘노벨라(NOVELLA)’, 아늑하고 차분한 느낌을 강조한 ‘다노떼(LANOTTE)’, 브리티시 레트로 감성의 싱글 침대 ‘올리보(OLIVO)’를 마련했다. 여기에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BMA1086’, ‘BMA1169’까지 더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2인용 침대는 세미 클래식 디자인으로 포근한 무드를 선사하는 ‘플로라(FLORA)’, ‘루체-III(LUCE-III)’, 호텔 스위트룸을 연상시키는 ‘BMA1148’ 등 에이스침대만의 감성이 돋보이는 제품들로 구성했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대기업 손잡고 中企 수출길 넓힌다

대·中企 동반진출 지원 참여사 모집
올해 169억 규모로 50개 과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해외시장을 함께 진출할 수 있도록 ‘2026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8일 중기부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대기업 등 산업 선도기업의 해외 자원(인프라)과 연결망(네트워크)을 활용해 역량은 있지만 해외

자원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주관기업 공모를 거쳐 25개 과제를 올해 1차 지원대상으로 선정했고, 이번 과제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을 본격 시작했다.

2026년 동반진출 지원은 169억원 규모로 약 50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2차 과제 모집은 오는 5월 예정이다.

올해는 우선 대기업 등 주관기업 간

협업과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유통이나 플랫폼, 방송사 등 2개 이상의 주관기업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게 되며 주관기업별 전문성을 발휘해 단계별로 협업하게 된다.

중장기 프로젝트형 동반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중장기 프로젝트는 참여 중소기업당 지원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늘리고, 제3국으로의 생산거점 이전(P턴)유형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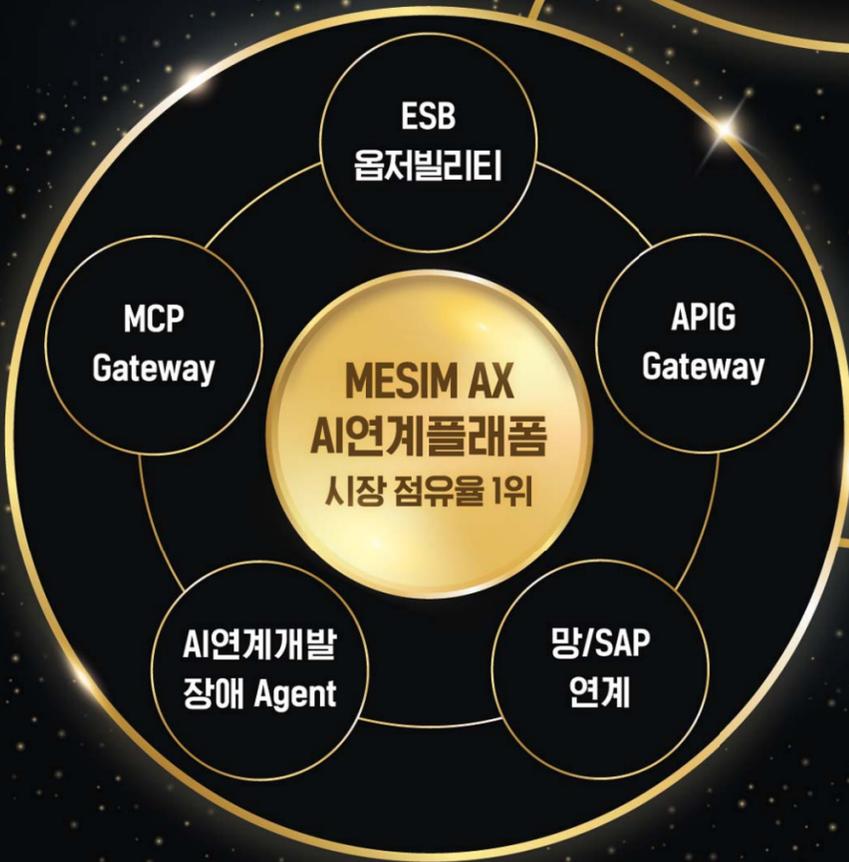
/김승호 기자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WBC에 모바일 야구게임도 ‘들썩’ 컴투스, 스포츠 이벤트 효과 노린다

KBO 리그 기반 ‘컴투스프로야구’
글로벌 겨냥 ‘MLB 9이닝’ 흥행
야구 시즌 때마다 상승흐름 반복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열기가 커지면서 모바일 야구 게임 시장도 동시에 들썩인다. 특히 국내 대표 야구 게임 라인업을 보유한 컴투스가 직접적인 수혜 기업으로 거론된다.

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WBC를 중심으로 야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모바일 야구 게임 이용자 유입도 함께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스포츠 이벤트가 실제 스포츠 게임 이용 증가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패턴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컴투스는 국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야구 게임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게임사다. 대표작인 ‘컴투스프로야구’ 시리즈는 KBO 리그 기반 모바일 야구 게임으로 20년 가까이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MLB 9이닝’ 시리즈도 장기 흥행을 이어가며 컴투스의 핵심 스포츠 게임 IP로 자리 잡았다.

특히 야구 국제 대회나 프로야구 시즌이 시작될 때마다 게임 이용자 수와 매출이 함께 상승하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실제로 프로야구 개막 시즌이나 국제 대회가 열리는 시기에는 신규 이용자 유입과 복귀 이용자 증가가 동시에 나타난다.

업계에서는 WBC가 이러한 흐름을



컴투스프로야구2026 공식 이미지.

/컴투스

다시 자극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국가대표 경기와 선수 활약이 화제가 되면서 야구 자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게임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바일 스포츠 게임은 실제 경기와의 연동 효과가 강한 장르다. 특정 선수의 활약이나 대표팀 성적이 화제가 되면 해당 선수 카드나 팀을 활용한 플레이가 늘어나는 경향도 나타난다.

컴투스 역시 이러한 스포츠 이벤트 효과를 꾸준히 경험해 왔다. ‘컴투스프로야구’ 시리즈는 실제 KBO 리그 개막 시즌에 맞춰 업데이트와 이벤트를 진행하며 이용자 활동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반복해 왔다. 글로벌 게임인 ‘MLB 9이닝’ 역시 메이저리그 시즌과 맞물려 이용자 유입이 늘어나는 구조다.

게임업계에서는 스포츠 이벤트가 계

임 흥행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구처럼 시즌제 스포츠는 실제 경기와 게임 이용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제 대회나 리그 시즌이 시작되면 스포츠 게임 이용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야구는 실제 경기와 게임 플레이의 연결성이 높은 장르라 이벤트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WBC와 프로야구 개막 시즌이 맞물리면서 당분간 야구 게임 시장의 이용자 활동도 함께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스포츠 이벤트가 게임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연쇄 효과’가 다시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카카오TV 서비스 종료… 숏폼 콘텐츠 강화

플랫폼 구조 재편 신호

카카오가 동영상 플랫폼 카카오TV 서비스를 종료하며 콘텐츠 전략을 재편한다.

카카오는 8일 동영상 플랫폼 카카오TV 서비스를 종료하고 숏폼 콘텐츠 중심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카카오TV는 2015년 다음TV팟을 기반으로 출범한 플랫폼이다. 라이브 방송과 오리지널 콘텐츠 등을 제공하며 카카오의 영상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콘텐츠 소비 환경이 빠르

게 변하면서 플랫폼 경쟁 구도도 달라졌다. 틱톡과 유튜브 쇼츠 등 숏폼 중심 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기존 동영상 플랫폼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졌다.

카카오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콘텐츠 전략을 재정비한다. 긴 영상 중심 플랫폼 대신 숏폼 콘텐츠와 창작자 생태계 강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IT 업계에서는 카카오TV 종료를 플랫폼 구조 재편의 신호로 해석한다.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 숫자를 늘리는 전략보다 핵심 영역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빛나 기자

‘붉은사막’ 플랫폼 정보공개 요구 커져

필어비스, 7년 개발한 차기 대작
콘솔 플랫폼 성공여부 흥행 영향

필어비스 차기 대작 ‘붉은사막’에 대한 이용자 기대감이 다시 높아진다.

8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필어비스가 개발 중인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을 둘러싼 이용자 관심이 확대된다.

붉은사막은 필어비스가 약 7년 동안 개발해 온 대형 프로젝트다. 광대한 오픈월드와 높은 그래픽 완성도를 특징으로 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기대적으로 꼽힌다.

게임은 광대한 파이널 대륙을 배경으로 전투와 탐험, 스토리 중심 플레이를

결합한 구조를 갖는다. 필어비스 자체 게임 엔진을 기반으로 한 사실적인 그래픽과 액션 연출이 특징이다.

최근 공개된 영상과 정보 이후 이용자 커뮤니티에서는 플랫폼 관련 정보 공개 요구가 이어진다. 특히 콘솔 버전 세부 정보와 플랫폼 지원 범위에 대한 질문이 증가하는 분위기다.

콘솔 시장 공략 여부는 글로벌 게임 시장 전략에서도 중요한 요소다. 콘솔 플랫폼에서 성공 여부가 글로벌 흥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붉은사막이 필어비스의 차세대 핵심 IP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빛나 기자

KT, AI 인재양성 ‘에이블스쿨’ 수료식

300명 교육생 실무교육 받아

KT는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 ‘에이블스쿨’ 8기 수료식을 열고 교육 과정을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300명의 교육생이 참여해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개발 및 컨설팅 관련 실무 교육을 받았다.

8기 교육생들은 지난해 9월부터 약 840시간 동안 이론과 실습 교육, 기업 프로젝트 등을 수행했다. 전용 온라인 실습 플랫폼 ‘에이블 에듀’를 활용해 온라인 환경에서도 교육이 진행됐다.

에이블스쿨은 2022년 1기 수료생을 배출한 이후 현재까지 수료생들이 국내외 약 500개 기업에 취업했다고 KT는 설명했다.

KT는 지난 2월 27일 서울 송파구 소



KT가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엠베서 더서울에서 교육생과 ICT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취업박람회 모습. /KT

피텔 엠베서 더서울에서 수료생 대상 취업박람회를 열고 채용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행사에는 KT를 비롯해 BC카드, KT클라우드, KT CS, KT텔레캅, KT알파 등 그룹사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참여했다. /김서현 기자

LG U+, 외부노출 없는 일체형 AI 개발 박차

MWC26서 퓨리오사 AI와 ‘맞손’
소버린 AI 어플라이언스 개발 나서
AI 플랫폼·엑사원·NPU 통합

LG유플러스는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와 기업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버린 AI 어플라이언스’ 개발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퓨리오사AI와 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6 현장에서 AI 인프라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상엽 LG유플러스 CTO와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가 참석했다.

소버린 AI 어플라이언스는 기업 데이터가 외부 클라우드로 전송되지 않고 내부 인프라(온프레미스 환경)에서만 처리되는 일체형 AI 장비다. 별도의 복잡한 서버 구축 없이 전원과 네트워크만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장비에는 LG유플러스의 기업용 AI 플랫폼과 LG AI연구원의 AI 모델 ‘엑사원(EXAONE)’, 퓨리오사AI의 신경망처리장치(NPU)가 통합된다.

LG유플러스는 기업용 AI 플랫폼과 엑사원 4.0을 기반으로 사내 문서 검색



LG유플러스가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와 손잡고 기업 내부에서 안전하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소버린 AI 어플라이언스’를 개발한다. 이상엽 LG유플러스 CTO(전무·왼쪽)와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가 MWC26 현장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LG유플러스

과 요약, 업무 자동화 등을 지원하는 운영 구조를 설계한다. 폐쇄망 환경에서도 문서 검색과 질의응답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 환경에 맞는 운영 모델을 만드는 역할을 맡는다.

퓨리오사AI는 최근 양산을 시작한 2세대 NPU ‘레니게이드’를 기반으로 엑사원 4.0의 추론 성능을 높이는 작업을 담당한다. 다수 사용자가 동시에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처리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산 구

조를 최적화하고 전력 효율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사는 소버린 AI 어플라이언스를 통해 공공·국방·의료·금융·제조·연구기관 등 외부 클라우드 활용이 제한적인 환경에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 안정성이 중요한 현장에서도 상시 운영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AIDC 기반 NPUaaS(서비스형 NPU)와 피지컬 AI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AIDC 분야에서는 NPU 기반 추론 인프라 설계와 운영 구조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로봇이나 설비 제어가 필요한 현장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추론 기술 적용 가능성을 연구할 예정이다.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는 “AI 모델과 플랫폼, 반도체 기술을 하나의 구조로 결합해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엽 LG유플러스 CTO는 “AI가 실제 업무 환경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성능뿐 아니라 보안과 운영 안정성도 중요하다”며 “기업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인프라 모델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변동성 커진 코스피... 개인은 베팅, 외국인은 리스크 관리

대형주·레버리지 상품 중심 매수 외국인, 하락 대비 현·선물 매도 전고점 회복 속도, 투자심리 좌우

코스피가 급등락을 거듭하며 변동성이 확대되자 전고점 회복 속도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개인 투자자들은 반등에 베팅하며 대형주와 레버리지 상품을 대거 사들이는 사이 외국인은 현·선물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확대하며 리스크 관리에 나선 모습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6000선을 넘어섰던 지난달 25일 이후부터 6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14조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14조원을 순매도했다. 반대로,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4조5000억원 어치를 팔고, 외국인이 3조1000억원 가량을 담았다.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코스피 변동성이 확대된 시점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정반대 투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개인 반등에 베팅 vs 외국인은 변동성 확대 대비



ChatGPT로 생성한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의 엇갈린 투자 전략' 관련 이미지. 개인은 코스피 상승에 베팅하는 반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이탈하며 코스닥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선호 종목도 뚜렷하게 갈렸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삼성전자(8조3373억원)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으며, 다음으로 SK하이닉스(4조1000억원), 현대차(9953억원), 한국전력(5928억원), S-Oil(4558억원) 순이다. 반면, 외국인은 삼성전자(10조1445억원)와 SK하이닉스(4조8002억원), 현대차(6930억원)를 가장 많이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

인 셀트리온(2760억원)과 한미반도체(2346억원)도,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한미반도체는 6023억원, 셀트리온은 2019억원씩 팔았다.

한국판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지수(VKOSPI)는 5일 장중 83.5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리고 지난 6일 기준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 시장에서 12월 만기 이후 누적 3만3000계약을 순매도하며 매

도 포지션을 확대하고 있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도 개인과 외국인의 엇갈린 투자 방향성이 발견된다.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최근 일주일 간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레버리지'로 8777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이 기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KODEX 200선물 인버스2X'를 655억원 사들이며 하락장에 투자했다. 코스피에서 순매도세를 보임과 동시에 인버스 ETF를 매수한 것이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는 레버리지 상품 위주로 투자하며 선호를 유지했고, 'KODEX 레버리지'도 481억원 순매수하며 양방향 전략을 펼쳤다.

◆코스피 1차 반등 목표는 5800...전고점 회복은 언제쯤?

코스피는 지난 3~4일 2거래일 동안 폭락장을 거친 뒤 5일에는 9.63% 상승하며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다. 6일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세와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맞서며 강보합에 그쳤다.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은 증가 기준 전고점이었던 6307.27으로 향한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코스피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회복 속도를 가늠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코스피는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6일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 3~4일 동안의 폭락분을 회복한 종목은 100개 이하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1차 반등 목표를 5800선으로 제시한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1차 반등 목표는 5800포인트"라며 "이후 직전 고점 회복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투자심리 회복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대신증권도 지난 3일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5800에서 7500으로 상향하며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과거 2001년 9·11 테러로 12.02% 급락했던 코스피는 다음 거래일에 4.97% 상승한 뒤, 42일 뒤인 10월 24일 이전 지수 수준을 회복했다. 다만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쇼크 당시에는 코스피가 하루에 9.4% 추락했고, 이후 180일 지나서야 제자리로 돌아왔다.



/신화는 기자 godhe@metroseoul.co.kr

액티브 ETF 출격... 지수초과 수익 노린다

삼성·타임폴리오·한화자산운용 상장 코스닥 상승세... 외국인 자금 유입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자산운용사들이 코스닥을 기반으로 한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잇달아 선보인다. 최근 코스피가 중동 전쟁 여파로 조정을 받는 가운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어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오는 10일 코스닥을 기반으로 한 액티브 ETF를 나란히 상장할 예정이다. 두 상품은 모두 코스닥 전체 지수를 비교지수로 삼고 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목표로 하는 구조다. 한화자산운용 역시 일주일 뒤인 17일 'PLUS 코스닥150 액티브'를 상장하며 코스닥 액티브 ETF 라인업에 합류한다.

코스닥 액티브 ETF는 펀드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 운용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와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한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다양한 액티브 ETF가 출시됐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번이 사실상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최근 시장 환경도 코스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코스피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코스닥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이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시장에서는 코스닥 특성상 액티브 운용 전략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남의 타임폴리오자산운용 ETF본부장은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보다 산업 변화 속도가 빠르고 테마 순환도 잦은 시장이라 단순히 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 전략보다 기업의 성장성과 시장 트렌드를 선별해

투자하는 액티브 전략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이번 ETF를 코스닥 시장 특성에 맞춘 '코어(Core) 위성(Satellite)' 전략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2차전지와 바이오 등 코스닥 대표 대형 섹터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동시에 빠르게 순환하는 테마와 수급 변화를 반영해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운용은 오랜 기간 코스닥 성장 기업을 분석해온 이정욱 ETF운용본부 부장이 맡는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코스닥 유망 산업 대표주 중심의 압축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시했다. 제약·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로봇, 우주항공·방산, 에너지 등 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유니버스를 구성하고 성장주와 가치주를 약 7대3 비중으로 편입해 지수 대비 초과 수



ChatGPT로 생성한 '코스닥 액티브 ETF' 이미지.

익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총보수도 차이가 있다. 'KoAct 코스닥액티브'의 총보수는 50bp(bp=0.01%포인트), 'TIME 코스닥액티브'는 80bp로 공시됐다.

한화자산운용도 코스닥 액티브 ETF 시장에 합류한다. 다만 10일 상장 두 운용사와 달리 한화자산운용은 전략 고도화 과정을 거쳐 상장 시점을 17일로 잡았다.

'PLUS 코스닥150 액티브'는 은기환 매니저가 운용을 맡으며 약 30개 종목을 동일 비중(각 2~5%)으로 구성하는 전략을 적용한다. 시장 가격 변동과 국면 변화에 따라 비중을 조절해 대응하는 방식이며 코스닥150 대비 에너지 부문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금감원·국방부 군인 대부대출 실태 점검

금융감독원이 국방부와 협력해 군장병의 대부업 대출 실태를 점검하고 금융교육을 강화한다. 최근 채무조정을 받는 군 장병이 증가하면서 일부가 대부업 대출까지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자 건전한 금융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군장병 대상 대출 영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군 장병 대상 대출 잔액이 총 44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들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총잔액 2조6924억원 가운데 군 장병 대출 비중은 약 1.6% 수준이다.

군 장병 대출을 취급한 대부업체는 총 25개사였다. 이 가운데 현역병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는 4개사, 직업군인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는 19개사였다. 현역병과 직업군인을 구분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한 업체는 3개사였다.

군 장병들이 대부업에 접근하는 경로는 대부분 온라인이었다.

이들 중개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총성론', '병장론', '현역병사 대출' 등의 이름으로 광고를 진행했다.

금융감독원은 군 장병의 대부업 이용이 고금리 부담과 신용점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업계에 무리한 영업 자체를 당부했다. 대부업체에는 군 장병 대상 대출 취급 시 과잉대부 금지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대부업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대부중개업체에도 관련 법규 준수를 강조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급락장에 빚투 러시... 사흘새 마통 1.3조 ↑

5대 은행 마통 잔액 40조 돌파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증시가 큰 폭의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추가 급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본 투자자들이 은행 신용대출을 끌어다 주식시장에 투입하면서 마이너스통장(마통) 잔액이 단기간에 크게 늘었다. 예금에서도 수조원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가며 증시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5일 기준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0조72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된 대출 잔액이다. 지난달 말 39조4249억원이던 잔액이 닷새 만에 1조2978억원 늘어난 것으로, 실제 영업일 기준으로 보면 사흘 만에 약 1조3000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현재 잔액 규모는 역대 월말 기준과 비교해도 2022년 12월 말(42조546억원) 이후 3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

이다. 증가 속도 역시 가파르다. 닷새 동안 늘어난 규모만 보면 월간 기준으로 2020년 11월 이후 5년3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당시에는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 초저금리 환경 속에서 '영끌'과 빚투가 동시에 확대됐던 시기였다.

이후 마통 잔액은 2021년 4월 말 52조8956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규제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2023년 2월 이후에는 줄곧 30조원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풍선 효과와 국내외 증시 강세가 맞물린 영향이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다시 40조원대(40조8377억원)를 넘어섰고 연말 상여금 유입 등으로 잠시 39조원대로 내려왔지만, 최근 이란 사태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다시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이같은 흐름은 주택담보대출 시장과는 대조적이다. 5대 은행의 5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10조1417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5794억원 줄었다. 반면 마통과 일반 신용대출을 합친 전체 신용대출 잔액은 105조7065억원으로 닷새 만에 1조3945억원 늘었다. 이 증가폭이 이달 말까지 유지될 경우 신용대출 증가 규모는 2021년 7월 이후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정윤 기자

산업부, 글로벌 R&D 예산 확대 제조업 등 산업 현장 AX 가속화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계획 공고
2322억 규모… 전년비 11% 증액
M. AX 분야 전용 R&D 트랙 신설

정부가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개발(R&D)을 확대해 국내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한다. 특히 제조업 AX 분야에 특화된 국제 공동 연구 트랙을 신설해 기술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2026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9일 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2322억원으로, 전년(2099억원)보다 23억원(11%) 확대 편성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기술협력 확대와 해외 첨단기술 확보,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국제공동기술개발 ▲글로벌산업기술연계 ▲국제협력기반구축 등 4개 프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그램으로 운영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1274억원)은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에 협력 거점을 구축하고 국내 기업과의 중장기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최대 5년간 과제당 100억원 이하 규모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올해는 신규 협력센터 1곳 지정과 19개 연구과제 지원이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2030년 '제조 AX 최강국' 도약을 목표로 M.AX(Manufacturing AX) 분야 전용 국제 R&D 트랙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제조 공정과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914억원)은 국가 간 협력 기반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양국 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양자펀딩형, 유럽 혁신 네트워크인 유레카(EUREKA) 등을 통한 다자펀딩형, 글로벌 기업의 구매 수요와 연계된 전략 기술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 글로벌산업기술연계 사업(75억원)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기관 간 공동 연구를 지원해 해외 선도기술의 국내 도입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국제협력기반구축 사업(59억원)을 통해 주요국과 기술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재외 한인 공학자를 활용한 기업 기술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세부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충청·호남·동남·대경·수도권 등 권역별 사업 설명회도 열릴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박진식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과 이희상 코트라 수석부사장(앞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한국무역보험공사-코트라 정기 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무보

무보·코트라, 수출기업 '원팀' 지원체계 가동

안전한 수출환경 조성 등 공조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팀' 지원에 나선다.

무보는 8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코트라와 '제1차 정기 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월 열린 산업통상부장관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양 기관 간 협력을 제도화하는 취지다.

양 기관은 앞으로 정기 협의회를 통해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코트라의 전 세계 해외무역관

네트워크와 무보의 무역보험·금융 지원 역량을 연계해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트라 지원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제공, 양 기관 중소·중견기업 육성 프로그램 연계, 수출 전 과정에 걸친 금융·마케팅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안전한 수출 환경 조성을 위한 공조도 강화한다. 양 기관은 ▲무역 상거래 데이터 공유 ▲무역사기 대응 합동 설명회 개최 ▲사기 의심 수입자 불시 점검 등을 통해 무역 사기 피해 예방에 협력할 예정이다.

박진식 무보 부사장은 "수출 지원의 선봉에 있는 두 기관의 공조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들이 수출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협중앙회, 유류비 부담 던다… 300억 투입

면세유 250억·주유소 50억 할인 지원
강호동 회장 "정부 물가안정 기조 동행"

농협중앙회가 일반가구 및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체 재원 300억 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면세유 할인에 250억 원, 농협주유소 할인에 50억 원을 지원한다.

면세유 할인 지원액 250억 원은 앞으로 한 달간 농업인들이 소비하는 물량에 적용된다.

할인 물량은 최근 3년간 3월 평균 소비량의 50%가 대상이다. 지원 물량은 농업분야 사용량이 많은 경유, 등유, 휘발유 순으로 차등배정되며 사용량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다. 필요한 재원은 농협중앙회 예산으로 한다.

주유소 할인에는 NH농협은행 재원 50억 원이 투입된다. 이달 13일부터 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7일 강원도 동춘천농협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찾아 트랙터에 농기계용 면세유를 주유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음 달 10일까지 전국 농협주유소 NH-OIL에서 NH농협카드 5만 원 이상 결제 시 리터당 200원 캐시백 할인(NH pay 사전응모시 최대 할인금액 1만 원)을 제공한다.

전국 717개 농협주유소는 이번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가격인상을 최대한

자제했다. 시장 평균 소비자가격 대비 휘발유 83원, 등유 118원, 경유 140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지원은 국제유가 폭등으로 인한 농가 및 소비자 부담을 한층 더 완화할 것으로 농협은 기대하고 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유류 가격지원이 농업인 영농비 부담을 줄여 농산물 가격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농협은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발맞춰 농업인과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농협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26일부터 2월20일까지 전국 농협주유소에서 난방용 등유를 대폭 할인 공급한 바 있다. 영농자재를 최대 30% 할인 공급하는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부산항만공사,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한국인터넷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부산항만공사(BPA)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부산항 사이버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8일 공사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6일 부산항만공사 사옥에서 체결한 협약에 따라 ▲부산항 사이버보안 협의체 운영 협력 ▲부산항 터미널운영사 등의 정보보호 인식제고 지원 ▲보안 취약점 진단,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도입·운영 지원 분야 등을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해외 항만의 랜섬웨어 공격사태 등 사이버 위협이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핵심 기반시설인

부산항의 보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부산항은 대한민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77%를 처리하는 세계적인 허브항만이다. 부산항이 사이버 공격으로 마비될 경우, 국내 수출입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양 기관은 인공지능(AI)와 자동화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항만으로 변모함에 따라 촘촘한 사이버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대한민국 사이버보안의 파수꾼인 KISA와의 협력은 부산항을 한층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항만으로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근로복지공, 업무상 재해 사건 '원심 존중' 원칙 도입

재해노동자 소송 부담 완화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는 '원심 존중' 원칙을 도입한다.

근로복지공단은 8일 법원이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공단이 패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상소제기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 일관되게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는 신속하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당부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법원 판단을 존중해 재해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공단은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패소 사건 유형을 종합 분석해 합리적인 상소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심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단이 패소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산재 인정 과정에서 장기간 이어지던 소송 부담을 줄이고 재해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다만, 다수 사건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거나 대법원 판단을 통해 법리 축적이 필요한 경우 등 상소 실익이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상소를 제기해 향후 업무처리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aT, 상반기 'K-푸드 아카데미' 입학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수산식품 산업 선도·혁신을 이끌 인력 양성을 위한 '2026년 상반기 K-푸드 아카데미'의 입학식을 개최했다.

8일 aT에 따르면 2004년 시작된 K-푸드 아카데미는 농식품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심화 교육과정으로 자리 잡았으며, 총 3260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이번 입학식은 지난 5일 경기 수원 소재 aT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에서 열렸다.

2026년 상반기 과정은 'K-푸드 CEO

MBA', '농식품 유통 전문가', '농식품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와 신규과정인 '농식품 AI 전문가' 등 총 4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홍문표 aT 사장은 "85년부터 현재까지 약 22만명의 교육생을 배출한 역사와 정통성을 가진 aT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입교를 환영한다"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해 농수산식품 산업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2025
JIWOO
Production
Presents

Musical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Welcome to the **Hyunam-Dong Bookshop**



2025.03.01 ~ OPENRUN 루미나아트홀

원작 항보를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클레이하우스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연출 박예슬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박민서

주최·제작 극단지우 기획 (주)지우컴퍼니(주)제이엘컬처 협찬 **yes24** 사모계절 티켓문의 **NOLticket** 공연문의 02.332.4902

충남도, 1조 규모 외자유치... 신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낸다

싱가포르 뷔나그룹 MOU 체결
태안 등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연간 1.67TWh 청정 전력 생산



김태홍 충남지사(오른쪽)가 지난 6일 싱가포르 스위소텔 더 스태포드에서 니틴 압테 뷔나그룹 대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충청남도

대한민국 탄소중립경쟁력을 선도하고 있는 충남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민간 재생에너지 기업으로부터 역대급 외자유치에 성공했다.

외자유치와 도내 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김태홍 충남지사는 지난 6일 싱가포르 스위소텔 더 스태포드에서 니틴 압테 뷔나그룹 대표, 정광진 한국대표, 가세로 태안군수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뷔나그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개발·투자·운영을 수행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일본·호주·인도 등에서 총 19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한국시

장에 진출했다. 협약에 따라 뷔나그룹은 2030년까지 태안을 비롯한 충남 일대에 총 1조 원을 투자해 해상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연간 1.67테라와트시(TWh) 이상의 청정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며, 연간 74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이번 사업이 탄소중립 실

현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뷔나그룹은 데이터센터 개발 전담 회사 '뷔나네스'를 통해 그린에너지와 디지털센터를 결합한 확장 전략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김 지사는 협약식에서 "대한민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한 충남은

불명예스럽게도 탄소배출량 전국 1위 지역"이라며 "도지사 취임 이후 탄소중립 관련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첨단 제조업이 집적된 산업 도시로, 탄소중립 대전환 과정에서 뷔나그룹의 기술과 경험이 충남의 해상풍력 자원과 결합하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핵심 인프라 확보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달부터 해상풍력법이 시행되는 만큼 제도적·행정적으로 뷔나그룹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니틴 압테 대표는 "2030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구축할 것"이라며 "충남도의 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목포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추진

목포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해 24일까지 '2026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지역사회 내 양성평등 가치 확산과 성평등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2000만원으로, 선정된 사업에는 사업당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균등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단체라면 참여할 수 있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창원시, 산불 대응역량 강화

창원시가 봄철 대형 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는 산불 예방부터 진화, 주민 대피, 사후 복구까지 전 단계에 걸친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주요 추진 내용은 ▲산 연접 취락시설 감시 활동 강화 ▲상황별 비상근무체계 강화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산불 진화 대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비 확충 ▲소각산불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초기 대응 및 통합지휘체계 구축 등이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경북도, 제조업 디자인 경쟁력 확보

기업 수요에 맞춘 체계적 디자인 지원
4년간 880건 과제... 매출증대 등 성과



김영호 경북도지사

경북도 제조업이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경북도는 2022년부터 추진해 온 '경북도 디자인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제품 경쟁력과 기업 가치를 높이며 지역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기업 수요에 맞춘 체계적인 디자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브랜딩·마케팅·뉴미디어 등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까지 연계한 종합 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 디자인 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제품 디자인과 브랜딩, 웹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880건의 과제가 추진됐으며, 단순한 외형 개선을 넘어 매출 증가와 신규 고용 창출로 이어지며 현장에서 긍정적인 평가

를 받고 있다. 특히 2025년 수혜 기업 성과 조사 결과 참여기업의 2024년 총매출은 전년 대비 평균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 사업인 '신시장 창출형 윈스톱 지원사업'은 기술 중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와 제품 기획, 디자인 개발,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디자인을 단순한 외형 요소가 아닌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 요소로 활용하도록 돕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는 "디자인은 중소기업 기술에 가치를 더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경북 기업들이 디자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경남도, 중소·수출기업 2800억 지원

유관기관과 민생경제안정 대책회의
유가·환율 등 글로벌 정세 선제 대응



경남도는 지난 6일 '민생경제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경남도

경남도가 이란 사태로 촉발된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금융 시장 변동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경남도는 지난 6일 도청에서 김명주 경제부지사 주재로 '민생경제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행 경남본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경남지원본부, 수출입은행 경남본부, 한국무역협회 경남본부,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본부 등 주요 경제·금융·수출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과 환율 변동, 수출입 물류 및 금융 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고 도내 기업과 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

했다. 도는 대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과 수출 기업에 2800억원 규모의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경남도 물가 대책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시군, 물가 모니터 요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농·축·수산물과 서비스 요금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경남도, 신규 기업창업 증가... 비수도권 1위

지난해 1.1만개... 전년 대비 4.6% ↑

전국적인 창업 감소세 속에서도 경남도의 신규 기술 창업이 오히려 늘며 비수도권 1위를 달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2025년 연간 창업 기업 동향'에 따르면 2025년 경남의 신규 기술 기반 창업 기업 수는 1만 1357개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전국 순위로는 4위다.

증가세도 뚜렷하다. 경남의 신규 기술 기반 창업은 전년 대비 4.6% 늘어 전국 평균 증가율 2.8%를 크게 웃돌았다. AI·디지털 기술 보급에 따른 경영 컨설팅 창업 증가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활성화로 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분야 창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경남의 기술 창업 비중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도내 전체 창업 가운데 기술 창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16.4%, 2023·2024년 17.5%에서 2025년 19.42%로 상승했다. 최근 5년간 연간 약 1만 1000건 내외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두순 경남도 창업지원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경남이 비수도권 기술 창업 1위를 달성했다"며 "창업 거점 조성 등 신규 기술 기반 조성과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손병호 기자

UNIST "초미세먼지, 뇌 건강 악영향"

초미세먼지 신경독성 기전 규명

초미세먼지(PM2.5)가 뇌혈관 기능을 저하시켜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기전 수준에서 밝혀졌다.

한국뇌연구원은 차매연구그룹 김도근 박사팀이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국가독성과학연구소(KIT)와 공동으로 초미세먼지의 신경독성 기전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는 뇌혈관 내피세포의 아릴 탄화수소 수용체(AHR)를 활성화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저하시켰다. 이에 따라 에너지 생산 능력이 감소하고 혈관 조절 기능이 약화되면서 뇌로 공급되

는 혈류량이 줄어드는 것이 확인됐다.

뇌혈관과 성장호르몬 등 주변 세포 간 상호 작용에도 이상이 관찰됐으며 뇌의 항산화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 같은 변화는 기억과 학습의 핵심 영역인 해마(hippocampus)에서 두드러졌다. 해마는 알츠하이머병 등 퇴행성 뇌질환과 밀접한 부위인 만큼,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 요인이 장기적으로 뇌 기능 변화와 연결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저널 오브 해저러스 머티리얼즈(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최신호에 게재됐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완도군 체류형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완도군에서는 4월부터 해양치유 활성화 및 효과 검증,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 체류형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바다, 숲, 섬 등 완도 전역을 하나의 치유 공간으로 활용하여 해양치유, 해양기후치유, 산림치유, 섬 투어, 해양활동(전복채취 등), 치유 식단 체험 등이 진행된다.

일정은 1박 2일부터 최대 5박 6일까지이며 관광 동선이 아닌 신체적, 심리적 회복의 흐름에 맞춰 해양치유가 필요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전국장애인육상선수권대회 개막

제7회 전국장애인종별육상선수권대회 겸 제1차 국가대표 선발전대회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김해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 300명, 임원 지도자 350명, 심판 운영요원 120명, 선수 보호자 100명, 자원봉사자 40명 등 900여 명이 참가한다.

김해시장에인육상연맹은 '안전한 대회' 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타 시·군 대회보다 확대된 자원봉사 인력과 교통관리 및 통제인력을 배치해 선수단 안내와 이동 지원, 경기 운영 보조 등 세심한 현장 지원을 제공한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편의점 무한변신... “디저트 즐기고 와인 고르고 환전까지”

체험·서비스 결합 플랫폼 진화
CU 러닝·디저트 취향형 매장 강화
GS25 주류 특화 등 장보기 공략
이마트24 플래그십 매장 확대
세븐일레븐 환전 등 관광 서비스

편의점 업계가 ‘상품 진열 중심 매장’에서 벗어나 체험·서비스 기능을 결합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각사는 러닝·디저트·주류·신선식품 등 취향과 생활 수요에 맞춘 특화 점포를 확대하며 단순 구매 공간을 넘어 머무르고 경험하는 공간 경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CU는 콘텐츠형 특화 매장을 중심으로 취향 소비 시장을 공략하며 러닝·디저트·라면 등 라이프스타일 기반 공간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러닝 특화 매장 ‘CU한강르네상스여의도3호점’과 디저트 특화 매장 ‘CU성수디저트파크점’을 새롭게 선보였다.

스낵 라이브러리(T2인천공항공교통센터점), 뮤직 라이브러리(에이케이&홍대점), K-푸드 특화 매장(명동역점) 등 다양한 특화 점포도 운영 중이다. 대표 콘텐츠인 ‘마면 라이브러리’는 전국 60개 점포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뷰티 특화점 500여 점, 주류 특화점 1만2000여 점, 건강기능식품 특화점 6000여 점 등 상품 카



하정우 와인 마키키 팝업 스토어.

/세븐일레븐

테고리 중심 특화 매장도 늘리고 있다.

GS25는 신선식품과 주류 특화 매장을 앞세워 생활 밀착형 소비 채널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농축수산물과 조미료, 소스류, 두부, 간편식 등 일반 점포보다 400~500종 많은 상품을 갖춘 신선강화 매장(Fresh Concept Store, FCS)을 통해 장보기 수요를 겨냥한다. 신선 특화 점포의 신선식품 매출은 일반 점포 대비 약 10배 높은 수준이며, 일부 매장의 경우 신선식품이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GS25는 신선 특화 점포를 연내 11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약 7000개 주류 특화 점포에서는 와인·양주·전통주 등 차별화된 주류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 스포츠 특화 점포는 한화이글스·LG트윈스·울산HD·FC서울 등과 협력해 현재 5곳을 운영 중이다.

이마트24는 젊은 소비층을 겨냥한 감성 플래그십 매장인 체류형 공간 전략으로 브랜드 경험을 강화하고 있다. 성수동에 선보인 플래그십 매장 ‘트렌드랩 성수점’은 브랜드 팝업존과 캐릭터 굿즈, 지식재산권(IP) 상품 공간을 통해 10~20대 젠지 세대와 트렌드에 민감한 30대 소비자를 겨냥한다.

‘머무는 편의점’을 컨셉으로 한 체류형 특화 점포도 확대 중이다. ‘이마트24스테이(STAY)’ 점포는 여유 있는 좌석과 동선을 중심으로 성동성수점과 병점주공7단지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병원 내 점포에는 ‘이마트24쉼’ 컨셉을 적용해 휠체어 고객 동선을 고려한 높이 조절 테이블을 설치하는 등 휴식 기능을 강화했다.

세븐일레븐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맞춰 관광 인프라형 서비스 확대에 나서



CU 성수디저트파크점.

/BGF리테일

고 있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마미네 교통카드’ 특화점에서는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캐릭터 이미지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교통카드를 제작할 수 있다. 동대문 단던점과 소공점 등 명동·동대문 외국인 상권과 호텔 인근 점포에서 운영 중이다.

명동 ‘뉴웨이브명동점’에는 파규어와 킴링 등을 뽑을 수 있는 D.I.Y 가차 서비스를 도입했고, 아이돌 포토카드 ‘포카아이’ 가차도 선보이고 있다. 외국인 거주 밀집 지역과 도심 관광지 상권에는 환전과 선불카드 발급, 교통카드 충전 등을 지원하는 무인환전 키오스크도 도입했다.

이와 함께 세븐일레븐은 오프라인 체험형 콘텐츠도 확대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롯데백화점과 손잡고 서울 잠실에 비뉴엘에서 배우 하정우의 작품을 담은 시그니처 와인 ‘마키키’ 팝업 스토어를

선보인다. 하정우 와인은 병 디자인에 예술 작품을 담은 ‘아트 와인’ 컨셉으로, 2024년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 100만병을 돌파하며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팝업 스토어에서는 ‘마키키 쇼비농블랑’과 함께 신제품 ‘마키키 리슬링’을 하루 500병 한정량으로 선공개하고 관련 굿즈도 판매할 예정이다.

이같은 흐름은 편의점 업계가 가격 경쟁을 넘어 공간 경험과 서비스 경쟁으로 전략의 중심을 이동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업계 관계자는 “특화 점포는 콘텐츠와 서비스 기능이 결합된 소비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향후 특화 점포 전략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풀무원, 김치 앞세워 K-푸드 경쟁력 입증

美 자연식품박람회서 전략제품 선보
식단 변화 맞춰 식물성 식문화 제안
에드워드 리 협업 등으로 공략 강화

풀무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지난 4일부터 6일(현지시각)까지 열린 ‘2026 자연식품박람회(Natural Products Expo West 2026)’에 참가하여 두부, 김치 등 정통 K-푸드와 두유면 등 혁신 제품을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8일 밝혔다.

풀무원은 2003년부터 이 박람회에 참가해 세계 최고의 두부 기업으로서 두부는 물론, 식물성 대체육과 식물성 만두, 볶음밥 등 식물성 지향 간편식 제품들을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들에게 알렸다. 올해 부스에서는 두부, 김치 등 정통성을 갖춘 K-푸드를 메인으로 내세웠다.



‘2026 자연식품박람회’의 풀무원 부스에 스타 셰프 에드워드 리가 함께해 K-푸드를 알리고 관광객과 소통했다. /풀무원

올해 초 미국 정부의 새로운 식단 가이드라인에 두부와 김치가 언급된 이후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점도 적극 반영했다.

이번 풀무원 부스에는 스타 셰프 에드워드 리도 특별히 함께해 열띤 호응을 얻었다. 에드워드 리는 미국에서 꾸준히 한식을 알리며 풀무원과도 협업을 이어

오고 있다. 그는 두유면을 김치와 함께 버무린 ‘김치 비빔 두유면’과 연두부를 활용한 ‘김치 두부 샐러드’의 특별한 레시피를 공개하고, 풀무원 부스 관람객을 대상으로 사인회도 진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풀무원은 올해 하반기 출시될 신제품을 전시하며 혁신 제품 경쟁력을 선보였다. 대표적으로 ‘두유면’은 글루텐 프리에 칼로리 부담 없이 고식이섬유, 고칼슘으로 영양을 챙긴 제품으로 면을 헹구거나 삶을 필요 없이 간편 조리 가능해 이번 박람회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풀무원 미국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아시아인 늘카테고리의 신제품 ‘야키소바’를 비롯해 식물성 중심의 간편한 한 끼를 제안하는 ‘마늘&허브랩(Garlic & Herb Wraps)’도 함께 선보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GS25, 프리미엄 논알코올 시장 키운다

와인25플러스서 ‘어프리데이’ 6종

논알코올 맥주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주류 스마트더 플랫폼 ‘와인25플러스’를 통해 프리미엄 논알코올 맥주 ‘어프리데이’를 업계 단독으로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

‘어프리데이’는 국내외 주요 맥주 품평회를 석권하며 세계적 수준의 품질을 인정받은 논알코올 맥주다. 특히 세계 3대 맥주 대회 중 하나로 꼽히는 인터내셔널 비어 컵(IBC) 2025에서 논알코올 부문 금메달(스타우트)과 은메달(IPA)을 동시에 수상하며 최고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일반 맥주와



GS25가 와인25플러스를 통해 프리미엄 논알코올 맥주 1탄 어프리데이를 론칭했다. /GS리테일

동일한 원재료, 양조 과정을 거쳐 완성됐으며, 흡의 아로마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풍미 등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신원선 기자

롯데마트, 中소 베트남 진출 돕는 ‘글로벌 가교’

中소 20곳·유통 바이어 48명 참가
베트남 MD 참여해 입점·수출 컨설팅

롯데마트가 국내 중소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돕는 ‘글로벌 가교’ 역할에 나섰다.

롯데마트는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K-수출전략 품목 베트남 진출 수출상담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

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한유원)이 추진하는 중소기업 해외 진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롯데마트는 현지 유통망 확보의 어려움과 시장 정보 부족 등으로 해외 판로 개척에 제약을 겪는 우수 중소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행사를 공동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식품 중소기업 20개사와 베트남 현지 및 국내 유통 바이어 48명이 참여했다. 상담회장에 마련된 기업별 전시

부스에서 바이어들이 각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시장성을 평가했으며, 현지 유통 환경과 소비 트렌드에 대한 상세한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제공되어 참가 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상담회는 단순 비즈니스 미팅을 넘어 참가 기업의 상품이 실제 매장 입점과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베트남 롯데마트 MD들이 상담에 직접 참여해 현지 매장 입점을 고려한 제품 검토와 실질적인 수출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신원선 기자

G마켓, 스타배송 협력사에 ‘위킵’ 합류

셀러 비용 부담 낮추고 도착보장 확대

G마켓이 도착보장서비스 ‘스타배송’의 공식 풀필먼트 협력사로 ‘위킵’을 신규 선정하고 배송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위킵은 자체 개발한 AI 기반 풀필먼트 솔루션을 중심으로 빠른배송 대응 체계를 고도화한 풀필먼트 기업이다. 인천 허브센터를 비롯해 인천, 화성, 부산 등 주요 거점 풀필먼트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G마켓은 이번 제휴를 계기로 스타배송 인프라를 강화하고, 빠른배송을 기반으로 판매자 경쟁력 제고에 속도를 낼 방

침이다. 스타배송 공식 협력사는 기존 CJ더퍼플, 품고에 이어 위킵이 합류하면서 총 세 곳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는 더욱 많은 상품을 대상으로 도착보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셀러에게는 물류 효율성과 매출 확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목표다.

스타배송은 고객과 약속한 날짜에 상품을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평일 오후 11시, 주말 오후 10시까지 주문 당일 출고 및 익일 배송이 가능한 주 7일 배송 체계를 갖췄다.

/신원선 기자

985억 자금조달... 바이오 전문 VC 대거 참여

인벤티지랩

목표금액보다 123% 상회 수준
기존 투자자 상당수 재참여 확인

VIL-드러그플루이딕 등 사업화
큐라티스 바이오플랜트 설비 확장

약물전달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이 총 985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당초 800억원 규모의 자본 조달을 목표로 투자 유치를 진행했으나, 기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목표금액을 123% 상회하는 투자수요가 확보되며 약 1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자금조달에는 회사에 대한 비상장 시기 및 상장 이후 메자닌 투자에 참여했던 기존 투자자들이 상당수 재참여했다.

인벤티지랩 관계자는 "인벤티지랩의 경쟁력과 사업적 성과를 숙지하고 있는



기존 투자자 그룹에 의한 반복적인 자금 조달은 회사의 플랫폼 기술력과 사업적 기회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신뢰를 확인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투자에는 바이오 전문 벤처캐피탈(VC)이 대거 참여한 것도 특징이다.

플렉서스파트너스,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스톤브릿지벤처스, 스타셋인베스트먼트, 아주IB투자, 미래에셋벤처투자, IMM인베스트먼트, BNH인베스트먼트, 우리벤처투자, 메디치인베스트먼트 등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투자전문성을 보유한 벤처캐피탈과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물론 오아시스매니지먼트(Oasis Management), 델타플렉스캐피탈(DeltaFlex Capital) 등 해외 투자자들도 참여했다.

인벤티지랩은 이번 투자자금을 연구개발(R&D), 운영자금, 우수약품제

조관리기준(GMP) 시설 투자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IVL-드러그플루이딕(DrugFluidic)'과 바이오의약품 피하주사(SC) 제형 플랫폼 'IVL-바이오플루이딕(BioFluidic)'의 사업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확보된 투자금 중 일부는 충북 오송에 위치한 큐라티스 바이오플랜트 내 제조설비 확장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회사는 이를 통해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커머셜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향후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확대에 필요한 생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이사는 "이번 투자에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투자기관들이 다수 참여했고, 특히 비상장 시기부터 오랜 기간 협력해 온 기존 투자자들의 재참여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확보된 자금을 바탕으로 인벤티지랩의 DDS 플랫폼 고도화를 가속화 하고, GMP 생산

인프라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여 장기지속형 및 단백질 의약품 SC제형 플랫폼의 사업화를 가속화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인벤티지랩은 약물이 체내에서 일정하게 방출되도록 돕는 장기지속형 주사제 기술을 자체 플랫폼 IVL-DrugFluidic을 개발해 왔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약효가 1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유지되도록 설계할 수 있어 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지난해 말에는 항체 및 ADC 등 바이오의약품을 피하주사(SC) 제형으로 전환하는 플랫폼, IVL-BioFluidic을 공개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 기술은 항체 의약품의 고용량 제형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점도 증가나 주입 한계 등의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기존 정맥주사(SC)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한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metro

팜젠사이언스 '마시는 알부민'으로 간편하게 활력 충전



팜젠사이언스는 자사몰 '솔루티'에서 액상형 활력 에너지 제품인 '마시는 알부민 메가부스터' (사진)를 공식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솔루티 마시는 알부민 메가부스터는 벨기에산 프리미엄 알부민을 주성분으로 활용해 한 포당 1만9400mg의 알부민 복합물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또 즉각적인 에너지 보충을 위해 아르기닌 50mg, 타우린 40mg 등을 배합했다.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비타민 B1·B2·B6, 9종 아미노믹스, 기력 보충을 돕는 발효녹용추출액도 더했다.

이와 함께 액상형으로 처방에 체내 흡수율을 높였고 알부민 특유의 비린 맛을 최소화한 과잉애플 맛을 구현했다.

팜젠사이언스 관계자는 "60년 제약 노하우를 가진 팜젠사이언스가 성분을 직접 설계하고, 해협(HACCP) 인증 시설인 대원헬스케어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쳐 제조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바쁜 일상 속에서 만성 피로를 느끼는 직장인이나 수험생, 기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활력을 충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CJ올리브영, 'K-라이프스타일'까지 외국인 소비 확산

역직구 채널 글로벌물 시즌세일 행사
마사지용품 누적매출 전년비 40배 ↑
웰니스·탈모관리 등 K뷰티 인기 견인

CJ올리브영은 외국인 고객의 구매 양상이 다변화하면서 'K뷰티' 소비 흐름이 웰니스 등 라이프스타일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올리브영은 지난 1~7일 공식 역(逆)직구 채널 글로벌물(사진)에서 시즌세일 행사를 진행했다. 해당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마사지용품,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간식 등이 판매 호조를 이뤄냈다.

특히 마사지용품의 이번 행사 1~3일 차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배 이상 증가했다. 얼굴 부기 관리를 위한 제품부터 지압 패치까지, 얼굴뿐 아니라 목, 다리 등 전신에 걸쳐 사용하는 상품으로 제품군이 세분화되고 있는 것이 핵

심이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한 '다이어트 유산균' 등의 수요도 늘었다. 다이어트 간식으로 알려진 '컷팅 젤리'의 경우 글로벌물 시즌세일 인기 품목 톱10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올리브영은 최근 들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K뷰티 성장세에는 국가별 다른 생활 방식과 관심사가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기존 주력 시장인 미국에서는 웰니스 상품군이 K뷰티 인기를 견인한다. 1회 섭취분량으로 설계된 파우치형 단백질 셰이크가 미국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고 있다. 미국은 주로 고용량 제품이 많은 데 비해 한국 상품은 간편함, 휴대성, 다양한 맛을 갖춰 차별화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지난해 글로벌물 매출 데이터에서 미국 고객 대상 '스포츠·프로틴음료' 판매량은 전년 대비 231% 커졌다.

K뷰티 신흥 국가인 영국에서는 탈모 관리 상품군이 입지를 넓힌다. 탈모 관리에 관심이 높은 영국 고객 특성과 두피를 피부처럼 관리하는 K뷰티만의 한국형 헤어관리법이 맞물렸다. 두피에 직접 도포하는 방식의 헤어 앰플은 지난해 영국 고객 인기 상

품 상위권에 진입했고 헤어 부문 매출 또한 전년 대비 약 11배 증가했다.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는 피부 진정 및 장벽 개선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 등을 중심으로 한 K뷰티 소비가 두각을 보였다. 건조한 기후로 인해 민감해진 피부를 관리하는 소비로 풀이된다.

또 K뷰티에 대한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일본에서는 메이크업 제품이, 싱가포르에서는 기초부터 색조까지 구분 없이 폭넓은 소비 양상이 나타났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한국을 다녀간 방문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글로벌물 가입과 이용이 지속 늘고 있다"며 "1만 개 이상의 K뷰티·K웰니스 상품을 갖춘 올리브영 글로벌물을 기반으로 해외 고객들이 일상에서 K라이프스타일을 향유할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mlee236@



LG생활건강 '프레시안', 日 뷰티채널 입점

日 '코스메키친' 출시 직후
온라인몰 판매 1위 등 성과

LG생활건강은 일본 내추럴&오가닉 뷰티 채널 '코스메키친' 온·오프라인에 비건 메이크업 브랜드 프레시안이 입점했다고 8일 밝혔다.

프레시안은 건강과 환경에 대한 의식 있는 뷰티에 중점을 둔다. 모든 제품에 비건 인증을 적용하고 사탕수수 원료로 한 바이오-PET 포장재,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퍼프 등을 도입하고 있다.

코스메키친 역시 업사이클링 원재료를 비롯한 지속가능한 성분으로 생산한 뷰티 제품을 주로 선보이는 편집숍이다. 프레시안은 이번 입점으로 일본 친



일본 코스메키친 매장에 '프레시안'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LG생활건강

환경 웰니스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브랜드 대표 제품인 '에그라이크 크림 블러쉬'는 코스메키친 출시 직후 온라인몰 치크카테고리 판매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일본 시장에서 빠르게 성과를 거뒀다. /이정하 기자

에스티팜, '니파바이러스 백신' 시료 생산

비임상 단계 전반 지원

에스티팜은 '니파바이러스 mRNA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비임상 시험용 시료 생산을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료 생산은 에스티팜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인 '팬데믹 대응 감염병 백신 후보물질 비임상 시료 생산 및 안전성 평가' 용역 사업의 일환이다. 국내에서 발굴된 감염병 백신 후보물질을 상용 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향후 신속한 임상 진입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제기되는 치명적인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현재까지 승인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선제적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에스티팜은 이번 과제를 통해 백신 생산 공정 개발부터 분석법 확립, 독성 시험 시료 생산 등 비임상 단계 전반을 지원한다.

특히 니파 바이러스 mRNA 백신 시료 생산에는 에스티팜의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이 전면 적용된다. mRNA 백신의 핵심인 5' 캡핑 기술이 적용된 'SmartCap'과 지질나노입자(LNP) 전달 기술이 적용된 'STLNP'를 활용해, 에스티팜의 차별화된 mRNA 위탁개발생산(CDMO) 기술력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할 계획이다. /이정하 기자



COME & CONNECT

2026년 4월 13일 - 17일 독일 뒤셀도르프

시찰단 모집

- 만데스만의 그린스틸을 비롯한 AI·로봇 연계한 생산관리 회사 탐방
- AI 응용 자동 용접·Pipe 제조사·용접 메쉬 철근가공, 전기강판, 클래드 파이프
- 탄소국경제도(CBAM)·유럽 관세정책을 꿰뚫어 보는 최신 이슈 경청(국제 포럼/세미나)
- 철강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네트워킹의 장!



참가일정

1. 참가신청 및 접수기간

2026년 2월 2일(월)~ 3월 6일(금)

2. 참가비용

5,990,000원

- 항공료, 숙박료, 교통비 등 일체 비용 포함
- 항공은 이코노미 클래스 (비즈니스 변경시 에스앤마일즈 문의)
- 숙박은 4성급 호텔 2인1실 기준 (호텔 싱글 차지 610,000원)

3. 신청방법

- 2026년 3월 6일(금)까지 당사 E-mail :smkang@snmiles.com으로 여권 사본 및 핸드폰 번호 송부 요망
- 여권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입국 가능

주요일정

날짜	도시	교통편	시간	일정	식사
DAY 1 4월 12일 일요일	인천 프랑크푸르트 뒤셀도르프	KE 945 전용차량	8:00 10:50	인천국제공항 집결 및 개별 탑승수속 인천 국제공항 ICN 출발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FRA 도착 한국인 가이드와 미팅하여 뒤셀도르프로 이동 (약 2시간 45분 소요) 석식 후 호텔 체크인 후 휴식 HOTEL : Ramada By Wyndham Essen 혹은 동급	중 : 기내식 석 : 현지식
DAY 2 4월 13일 월요일	뒤셀도르프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전시장으로 이동 Wire&Tube 2026 전시회 참관 (DEUTSCHE MESSE-전시회 설명) 석식 후 호텔 복귀 및 휴식	조 : 호텔식 중 : 매 식 석 : 현지식
DAY 3 4월 14일 화요일	뒤셀도르프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전시장으로 이동 Wire&Tube 2026 전시회 참관 석식 후 호텔 복귀 및 휴식	*티센그룹 머티리얼 *SMS그룹, Swiss Steel그룹 1. 만네스만 그린스틸 2. ECO-Metal 프로그램을 통한 친환경 제조혁신기업 3. EVG, Butting 그룹 조 : 호텔식 중 : 매 식 석 : 현지식
DAY 4 4월 15일 수요일	뒤셀도르프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업체견학 현지업체 견학 : FRAUNHOFER 연구소(섭외중), CD.W EJP, Bilstein trade KG(섭외중), 막스플랑크연구소(섭외중) 등 프랑크푸르트로 이동 (약 2시간 45분 소요) 석식 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조 : 호텔식 중 : 현지식 석 : 현지식
DAY 5 4월 16일 목요일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9:00	호텔 조식 후 업체견학 현지업체 견학 : FRAUNHOFER 연구소(섭외중), CD.W EJP, Bilstein trade KG(섭외중), 막스플랑크연구소(섭외중) 등 프랑크푸르트로 이동 (약 2시간 45분 소요) 석식 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HOTEL : Holiday Inn Frankfurt Airport-Neu-Isenburg 혹은 동급	조 : 호텔식 중 : 현지식 석 : 한 식
DAY 6 4월 17일 금요일	프랑크푸르트	KE 946		호텔 조식 후 프랑크푸르트 문화 탐방 - 프랑크푸르트 구시가의 중심 광장 뤼머광장 - 황제의 대관식이 치뤄졌던 고딕 양식의 성당 카이저 돔 - 3개의 동으로 구성된, 현대 예술작품을 볼 수 있는 현대 미술관 - 독일 국민 의회의 회의 장소로 사용된 파울교회 -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변화한 자일거리 - 뤼머광장과 박물관 지구를 잇는 철조 소제의 아이젤너 다리 - 신성로마제국 황제들이 대관식을 거행했던 대성당 공항 이동, 개별 탑승 수속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출발 (기내 숙박)	조 : 호텔식 중 : 현지식 석 : 자유식
DAY 7 4월 18일 토요일	인천		17:10	인천 국제공항 ICN 도착	조 : 기내식 중 : 기내식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 및 현지업체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미약품, '나눔 콘서트'로 전하는 선한 영향력

한미약품은 지난 1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18회 MPO 정기 연주회 및 제12회 빛의소리 나눔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MPO 단원들과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이 특별한 무대를 선사하고 있다. /한미약품



애경산업, 여성 가정 돕는 '응원꾸러미' 전달

애경산업이 지난 6일 지역 사회 내 여성 중심 가정에 '애지중지 응원꾸러미'를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왼쪽부터) 애경산업 박찬영 지속가능경영부부장, 인트리 최형숙 대표, 공동모금회 신혜영 사무처장, 다사랑공동체 성재호 대표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애경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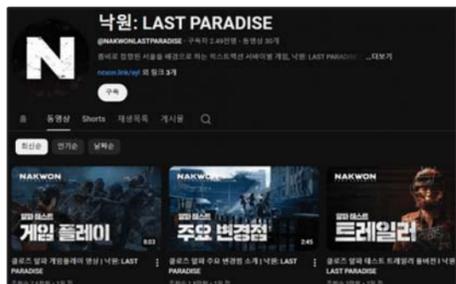
코웨이, '2026 iF 디자인 어워드'서 8개 본상 수상

코웨이가 '2026 iF 디자인 어워드(iF Design Award)' 제품 디자인 부문에서 총 8개의 본상을 수상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테라솔 U, 룰루 슬리믹 비데, 스퀘어핏 공기청정기 82㎡·38㎡, 인버터 제습기 23L, 히티브 온풍 공기청정기. /코웨이



기아 'EV5 GT', 車 기자협회 '3월의 차' 선정

기아의 고성능 전기차 모델인 'EV5 GT'가 우수한 기술력을 앞세워 한국자동차기자협회에서 선정한 '2026년 3월의 차'로 선정됐다. 50점 만점 중 35.3점을 획득해 3월의 차에 최종 선정됐다. 기아 EV5 GT 주행사진. /기아



넥슨, 좀비 세계관 담은 '낙원' 영상 공개

넥슨은 8일 좀비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신작 '낙원: LAST PARADISE'의 신규 영상 3종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에는 게임의 세계관과 주요 플레이 방식, 생존 시스템을 담았다. '낙원: LAST PARADISE'는 서울을 배경으로 한 좀비 생존 게임이다. 사진은 낙원: LAST PARADISE 공식 유튜브. /넥슨

'왕사남' 1000만 관객 돌파... SLL 제작 경쟁력 입증

(왕과 사는 남자)

범죄도시 시리즈 이어 연속 흥행 전문성 갖춘 멀티 레이블 구조

SLL이 다시 한번 '천만 영화'를 배출하며 콘텐츠 제작 경쟁력을 입증했다.

SLL은 자사 레이블인 비에이엔터테인먼트가 온다웍스와 공동 제작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지난 6일 누적 관객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이다.

이번 기록은 2024년 상반기 비에이엔터테인먼트가 흥행블름, 빅픽처픽처스와 공동 제작한 '범죄도시4'가 1150만 관객을 동원한 이후 약 2년 만에 나온 또 하나의 '천만 영화'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 영화계에



왕과 사는 남자 포스터. /SLL

서 천만 관객 영화가 드물어지는 상황에서, 연속으로 SLL 레이블 작품이 흥행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범죄 액션 장르인 '범죄도시' 시리즈에 이어 사극 장르까지 흥행에 성공하며 장르 확장성도 확인했다는 평가다.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영월로 유배된 어린 선왕 이흥위와 그를 지키려는 충장 엄흥도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역사적 비극 속 인간적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며 전 연령대 관객의 공감을 얻었다.

연출을 맡은 장항준 감독은 특유의 유머와 서사를 결합해 사극 장르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배우 유해진과 박지훈의 연기도 흥행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이번 성과를 SLL이 구축해온 멀티 레이블 제작 구조의

결과로 보고 있다. SLL은 산하 제작사들이 독립적으로 기획과 제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유통·투자 네트워크를 통해 시너지를 내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SLL 관계자는 "각 레이블의 개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왕과 사는 남자'는 올해 첫 천만 관객 영화로 기록됐으며 현재 극장 상영을 이어가고 있다. SLL은 이를 발판으로 올해 영화와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콘텐츠로 인업을 선보일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트랙스 크로스오버, 지난해 수출 1위

한국GM, 3년 연속 이름 올러

한국GM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북미 시장 흥행에 힘입어 3년 연속 국내 수출차 수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8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지난해 총 29만6658대를 해외 시장에 판매하면서 수출 1위를 기록했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는 15만 568대로 5위에 올랐다.

수출 1위를 기록한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크로스오버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쉐보레의 엔트리급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한국GM 쉐보레 2026년형 트랙스 크로스오버 모카치노 베이지.

다. 동급 대비 넉넉한 실내 공간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안정적인 주행 성능이 특징이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는 자체 집계 기준 2019년 글로벌 시장 수출을 시작한 이후 2025년까지 누적 해외 판매량 약 98만 대를 달성하며 인기를 입증했다. /양성운 기자 ysw@

유한양행, '2025년 공시우수법인' 선정

정확성·적시성 등 종합 심사

유한양행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개최된 '2025년도 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 시상식'에서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공시우수법인 선정 제도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 정확성, 적시성, 충실성, 투자자와 소통 등을 종합 심사한다.

유한양행은 성실한 공시로 자본 시장에서 기업 신뢰를 높이고 투자자와

원활하게 소통해 왔다. 특히 공시 품질 관리, 내부 공시 프로세스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 공시 투명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시장 참여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이번 공시우수법인 선정은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공시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건전한 자본 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인사

- ◆충북도 ◇5급 승진 △자치연수원 이재준 △북부출장소 행정지원과장 최춘화 △혁신도시발전과 조대형 △회계과 한창훈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고호진(파견)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홍은선(파견)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김미경(파견) △충주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이웅철(파견) △행정안전부 송성현(계획교류) ◇5급 전보 △일자리정책과 정우채 △

- 자치연수원 구철우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장 김홍영
- ◆질병관리청 ◇국장급 승진 △감염병 연구센터장 채희열
- ◆재정경제부 ◇국장급 인사 △정책기획관 김영노

부음

- ▲김제덕씨 별세, 염경엽(프로야구 LG 트윈스 감독)씨 부부상 = 8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 발인 10일. 02-3010-2000

청년창업어업인 장학생 30명 선발

해수부, 수산업·어촌 인재 지원

해양수산부가 '2026년도 1학기 청년창업어업인장학생' 3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달 9일부터 23일까지다.

해수부는 수산계 대학생들이 졸업 후 수산업계 및 어촌에서 청년 인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이장학금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청년 인재들의 유입 확대를 위해 장학생 선발 규모를 기존 연간 2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했다.

장학금 지원 대상은 수산계 대학이나 수산계열학과에 재학(1학년 2학기 이상) 중인 학생으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 등 1인당 41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또 학기 중에 어업 현장 실습 등 교육도 지원해 수산업·어촌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은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수산업 분야(어촌 소재)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등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한국농어촌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청년창업어업인 장학생은 학생들이 수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인재로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밑거름"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수산업에 관심을 갖고 어촌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청년 인재 양성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행복한백화점'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휴학생 가능... 9명 선발

한국중소벤처기업진흥원이 서울 동행복한백화점의 소비자 접점 확대를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8일 한유원에 따르면 최근 SNS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확산 중인 숏폼 콘텐츠 트렌드를 활용해 소비자의 '행복한백화점' 방문과 중소기업 제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학생 서포터즈는 올해 총 9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서울,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휴학생, 대학원생이며 신청 시 ▲개인 SNS 계정 링크 ▲15~30초 분량 샘플영상 1편 ▲콘텐츠 소재 아이디어 기획안 1건을 제출해야 한다.

모집은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진행하며 한유원 및 행복한백화점 홈페이지에 게시된 네이버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포터즈로 선정되면 월 2회 행복한백화점 홍보에 관한 숏폼형 콘텐츠



를 자신의 유튜브 또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해야 하며 활동에 필요한 비용, 수수료와 함께 활동실적에 따라 우수자 포상도 제공될 예정이다.

한유원 이태식 대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직관적인 숏폼 콘텐츠가 소비자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입점 중소기업의 성장, 매출 확대를 돕기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를 선발하게 됐다"며 "참신하고 빛나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대한홍삼(주)

건강창업의 모든 것!

BH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 파트너 모집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헛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BH 대한홍삼 [주] **창업문의 : 1522-7585**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Since 1996
헛터그룹
Haetter Group

(주)헛터
(주)헛터방송_브레인TV
(주)헛터라이프_헛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이미 면책된 빚, 채무불이행자명부 압박 못해



**박규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채무자가 회생, 파산절차를 신청해 채무를 면책받게 되면, 면책받은 채무의 범위 내에서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채권자 입장에서 돈은 받지 못하더라도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해 법원 결정으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식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까.

개인 채무자 A가 있다. A는 B에게 돈을 빌려 사용한 뒤 이를 갚지 않았고, B는 A에게 돈을 반환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상황이었다. 승소 이후 판결이 확정됐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A가 돈을 갚지 않자, B는 채무자 A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대법원은 “그 사이 채무자 A가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았음을 들어 B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이처럼 판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이를 통해 채무 이행을 유도하는 간접적 강제 효과를 가진다.

또한 일반인이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기능도 있다. 반면, 도산절차에서 진행되는 면책 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회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채무 책임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면책받은 채무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허용하는 것은 면책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즉, 도산절차에서 면책 결정이 이뤄지면 단순히 ‘채무는 존재하지만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채무에 대한 책임 자체가 소멸하게 된다.

파산, 면책 절차에서 누락된 채권은 어떨까. 실제로 파산, 면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A는 채권자인 B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했다. 이 경우 B의 채권에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한해 면책결정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예를 들어, 법원은 ▲면책신청 직전까지 카드 사용 및 연체가 지속되고 독촉장을 수령했음에도 신용카드 채무를 누락한 경우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지급독촉을 지속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음에도 대여금 채무를 누락한 경우 ▲사업상 거래

관계를 반복적으로 유지하면서 거래명세서를 발행하고 정산 협의를 진행했음에도 물품대금채무를 누락한 경우 등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했으면서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반면, ▲채권자가 오랜 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 경우 ▲사업이 폐업한 후 정산이 불분명하게 이뤄졌고 장기간 이에 대한 분쟁이 없어 거래가 종결된 것으로 인식했던 경우 ▲채권자와 채권액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추후 추가 청구를 제기한 경우 등에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채무자 A가 채권자인 B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 역시 악의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면책 결정으로 채무에 대한 A의 책임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처럼 도산 관련 소송에서는 채권, 채무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적법하게 면책결정이 이뤄졌다면 면책된 채권에 대해서는 더이상 채무자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기는 어렵다. /법무법인 바른

벼랑 끝 몰린 석유화학



**이지수첩
유혜온
(산업부)**

버티던 석유화학 업계에 중동발 변수가 덮쳤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격화되면서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동시에 뛰고,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원료 조달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여수산업단지의 여천NCC는 최근 원료 수급 문제로 제품 공급 불가를 통보하고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3월 인도 예정이던 원료 나프타 도입이 지연되면서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가 더 뼈아픈 이유는 업황 자체가 이미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한 상태다. 실제 주요 NCC 업체들의 평균 가동률은 최근 약 80%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체들은 설비 가동을 줄이거나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었다. 여천NCC 역시 이미 3공장 가동을 중단한 채 1·2공장만 운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가 부담까지 커졌다. 석유화학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은 최근 톤당 590달러에서 730달러 수준까지 약 25% 상승했다. 문제는 시장이 공급 과잉 국면이어서 오른 원가를 제품 가격에 제때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마진이 줄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dhaledhale@metroseoul.co.kr

원료 도입 차질 가능성도 커졌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나프타 재고는 약 2주 안팎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입 나프타의 절반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들어오는 만큼 중동 정세가 더 악화하면 원료 수급 불안이 곧바로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원유 수입 가운데 약 70%가 중동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업계에서는 NCC 평균 가동률이 60~70% 수준까지 낮아질 가능성도 거론한다.

이미 저수위의 구조에 놓인 업계에 원가 상승과 원료 조달 불안이 한꺼번에 덮쳤다. 생산 차질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이중고를 넘어 삼중고에 직면한 모습이다.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9일 (음 1월 21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큰 업체와 계약이 성사됩니다. **60년생** 지금 하는 일을 유지해야 합니다. **72년생** 사랑과 우정, 가족과 우정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84년생** 원하는 것 중 작은 것이 이루어집니다.



49년생 조금한 마음가짐은 하루를 힘들게 합니다. **61년생** 전업, 개업은 다음으로 미루세요. **73년생** 여행을 하면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85년생** 먼저 정한 버를 고집하세요.



50년생 평생 숙원이 앞에 있지만 조금 기다리세요. **62년생** 심신이 고달픕니다. **74년생** 가까운 친인척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86년생** 애정운이 금전운은 길하 나 곧 나 가게 됩니다.



51년생 과한 의존은 자신에게 피해를 줍니다. **63년생** 능력이나 사기를 조심하세요. **75년생** 오늘은 일찍 귀가하세요. **87년생**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긴 안목을 가지도록 하세요.



52년생 몸에 상처를 꼭 치료하세요. **64년생** 현실을 직시하고 냉정해야 합니다. **76년생** 다 끝낸 일이 다시 불거집니다. **88년생** 친구들과의 약속은 잠시 다음으로 미뤄보세요.



53년생 남쪽에서 귀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65년생** 좋은 운이 돌아오니 소리대로 처신하세요. **77년생** 심고 가꾼 곡식이 열매를 맺습니다. **89년생** 주위의 유혹에 넘어 가지 마세요.



54년생 심장과 소화기에 병이 들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66년생** 마음의 안정이 중요 합니다. **78년생** 매매가 이뤄지거나 큰 이익은 없습니다. **90년생** 지나친 신경은 건강을 해칩니다.



55년생 심기가 편치 못하니 내일을 기약하세요. **67년생** 돈이 막히는 날입니다. **79년생** 내 자신을 돌아 보는 하루를 보내세요. **91년생** 천생배필은 쉽게 오지 않는 법, 마음을 비우세요.



56년생 무리한 투자는 금물입니다. **68년생** 상대가 양보하지 않으니 중요한 협상은 미루세요. **80년생** 자녀문제도 고민하게 됩니다. **92년생** 자기 발전을 위해 꾸준히 매진하세요.



57년생 두려움을 멀리하고 강직하게 밀고 나가세요. **69년생** 재물운이 아주 좋습니다. **81년생** 만족할만한 결과로 일을 마무리합니다. **93년생** 자신 있는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58년생 노력을 하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70년생** 육신이 힘들지만 친구가 찾아옵니다. **82년생** 매매는 미루고 소송은 당겨 진행하세요. **94년생** 노력하지 않으면 하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59년생 몸과 마음이 분주하나 소득이 없습니다. **71년생** 티끌모아 태산이 될 수 있는 하루입니다. **83년생** 결과에 연연하면 실력발휘가 안됩니다. **95년생** 과감한 변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김상회의四季 복삼재 악삼재

삼재가 든다고 해서 겁먹을 일은 아니지만 일단 삼재의 재(災)자가 ‘재앙 재’자이다 보니 겁부터 나는 것도 이해가 간다. 어떤 모녀가 함께 상담을 왔는데, 모녀가 모두 삼재였고, 둘 삼재였던 작년에 모녀가 모두 힘들었던지라 놀삼재인 올해가 겁이 난다는 것이다. 어머니인 K씨는 올해 2026년도가 병오년이니 뭔가 더 안 좋은 일이 가중될까 근심스러워하였다. 작년에 집을 사고, 팔면서 크게 손실을 본 까닭이며, 딸은 신미생으로서 삼십대 중반인데 아직 미혼으로서 작년에 결혼 얘기가 오갔던 남친과 사소한 일로 다투다 헤어지니 삼재 때문인가 하고 있었다.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좋지 않은 일이 반복되거나 일마다 꼬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 흔히들 아홉수 또는 삼재가 들어서라는 말을 한다.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무릇 아기가 태어날 때는 모두 기뻐하며 축복한다. 그러나 살아가는 일은 생사가 고락이다.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는 그렇지 못한 일들이 태반이다. 잘하려고 한 일이 결과가 다르다면 상심은 더욱 크다.

누군가는 맨날 어렵기만 하다. 금수저로 태어나도 자신이 받아먹을 그릇이 되지 않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 자체가 휘청이며 불행해진다. 자수성가한 사람이 더 위대해 보이는 이유다. 선조들은 그 이유를 어떻게든 찾아내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구했다. 삼재는 일반적으로 천재(天災: 천재지변)와 지재(地災: 교통사고나 상해), 인재(人災: 사람으로 인한 사고나 보증, 사기)로 나누는데, 이것과 역에서는 삼살(三殺)에 연결된다. 즉, 겁살(劫殺), 지살(地殺), 천살(天殺)을 말한다. 자신의 팔자에 겁살, 지살, 천살이 있다면 삼재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다고 보는 것이 지론이다. 피흉귀길, 원화소복 모두 이러한 바램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겨 학습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옆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서울은 그랜드의 월드프린을 출간하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2	6	8	3	1	
	9	7				
	4	1	3	2		
5	9					
	1				5	
					8	6
	9	8	6		5	
			9	4		
4	6	8	1	5	2	

8	5	2	9		7	2
	2				9	1
4	5		2			8
			7	3		
9		5			4	3
8	7				1	
			6	8	4	2
2	3					

6	2	9	5	1	8	9	7
8	9	6	7	6	2	5	1
7	1	9	2	9	8	6	8
9	8	1	6	9	8	2	7
8	9	6	2	7	9	1	8
2	2	7	1	8	9	8	6
2	6	2	8	1	9	7	8
9	7	9	8	2	6	1	2
1	8	8	9	7	2	5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86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70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BTS 공연 앞두고 숙박업소 점검 서울시, 광화문 일대 18곳 적발

요금표·신고증 미게시 업소 적발
공연일까지 집중 점검·수사 지속
불법 영업·요금 위반 제보 접수
관광객 피해 막기위한 관리 강화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가 숙박업소 점검에 나선 결과,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숙박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시는 공연 당일까지도 점검과 제보를 병행하며 집중 관리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종로·중구, 서울경찰청과 함께 광화문 인근 일반·관광 호텔 등 8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하나 18개 업소는 영업신고증 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실제 점검에서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한 숙박업소가 숙박요금표와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다른 업소는 개업 이후 적발 당시까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확인됐다.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적발된 18개 업소를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적발업소는 최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숙박 요금표 미게시 등으로 적발된 업소는 숙박업소의 관할 기관인 종로·중구에 행정처분(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종로·중구, 서울경찰청과 함께 광화문 인근 일반·관광 호텔 등 8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

영업장 폐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 행위, 숙박업소 요금표 미게시, 게시요금 미준수 등을 시민제보 받고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중요 증거를 첨부해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BTS 컴백 공연을 보기 위해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피하나 불편을 겪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공연 당일 까지 숙박시설 등 강도 높은 불법영업 점검과 수사를 계속해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교육청, 45년만에 용산 신청사 이전

종로 청사 떠나 이달 순차 이전
노후 청사 대체, 행정체계 전환

서울시교육청이 45년간 사용해 온 종로 청사를 떠나 용산 신청사로 이전한다. 노후화된 기존 청사를 대체하는 동시에 교육행정 체계를 미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종로구현청사에서 용산구 소재 신청사로 이전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사는 기존 청사가 1981년 입주 이후 장기간 사용되면서 제기된 노후화와 공간 협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청은 2017년 청사 이전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2022년 1월 공사를 시작해 2025년 12월 준공했다.

신청사는 단순한 행정시설을 넘어 교육정책 기획과 학교 지원, 시민 소통 기능을 강화한 종합 교육행정 플랫폼을 목표로 조성됐다.

저층부에는 민원실과 라운지, 교육정책 홍보·전시 공간을 배치해 학생과 시민이 방문 즉시 서울교육 정책과 신청사 운영 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중·상층부에는 본청 실과 회의·협업 공간을 집적화해 기존 부서 분산 구조에서 벗

어나 교육 현안 대응을 위한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현재 신청사는 스마트오피스 조성 및 입주 청소 등 마무리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교육청은 3월 첫째 주 서울시의 회와 인근 학교 학생, 시민참여단, 출입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신청사를 사전 공개하는 오픈하우스 행사도 마련할 예정이다.

실제 이전은 13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진행된다. 신학기 교육 현장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국별로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교육청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민원실은 교육행정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에 이전한다. 이사 당일에는 각 부서 민원을 서울교육 콜센터 '1396'을 통해 응대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신청사 이전은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 서울교육 행정 운영체계를 미래형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70년 역사 서울교육이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정책은 더 빠르게, 지원은 더 촘촘하게, 소통은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파주, 11일 '독서국가' 선포식 개최

출판도시 지혜의숲서 독서 비전 선포
AI 시대 맞춤형 독서교육 전환 동참

파주시가 11일 15시 파주출판도시 지혜의숲 대회의실에서 '파주시 독서국가 선포식'을 개최하고 책 읽는 도시를 넘어 '독서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힘찬 출발을 알린다.

이번 선포식은 지난 1월 국회의원관에서 열린 '독서국가 선포식 및 독서국가 추진위원회 출범식'의 취지에 발맞춰, 인공지능 시대 대응 독서교육의 국가적 전환 움직임에 동참하고, 책과 도시의 강점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 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서관·교육·출판·서점 관계자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독서국가 선언문 발표 ▲대형 붓글씨 시연 ▲문단계의 아이돌이자 국회 독서국가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준 작가의 '읽는 하루'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파주시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독서 문화 확산 정책을 더욱 체계화해 시민 일상 속에 책 읽는 문화를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파주시도서관 누리집 또는 홍보물 내 QR코드를 이용하면 되고, 문의사항은 중앙도서관으로 전화하면 된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연고 41개 학과서 신입생 61명 미충원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대 증원에 상위권 자연계 이달
2025학년도 미충원 6년 새 최대
서울대·고려대 자연계 결원 뚜렷

2025학년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미충원이 41개 학과 61명으로 최근 6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5년 전보다 약 3배 증가한 규모로, 의대 모집 정원 확대 영향으로 상위권 자연계 학생들이 의학계열로 이동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8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연고 신입생 미충원 학과 수는 2020학년도 14개에서 ▲2021학년도 14개 ▲2022학년도 24개 ▲2023학년도 20개 ▲2024학년도 30개 ▲2025학년도 41개로 증가했다. 미충원 인원 역시 2020학년도 21명에서 ▲2021학년도 21명 ▲2022학년도 30명 ▲2023학년도 24명 ▲2024학년도 42명 ▲2025학년도 61명으로 늘며 최근 6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6학년도 신입생 미충원 현황은 대학

(SKY대 신입생 미충원 인원) /종로학원

대학명	계열	2023	2024	2025
서울대	인문	3	0	2
	자연	0	8	10
	예체능	0	1	1
	계	3	9	13
연세대	인문	9	6	2
	자연	6	12	3
	계	15	18	5
고려대	인문	0	5	14
	자연	6	10	29
	계	6	15	43
전체계	인문	12	22	18
	자연	12	30	42
	예체능	0	1	1
	계	24	42	61

알리미 공시에 따라 오는 8월 발표될 예정이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는 2025학년도 12개 학과에서 13명의 미충원이 발생했다. 최근 6년 동안 가장 많은 규모다. 서울대 미충원은 인문계 2개 학과 2명, 자연계 9개 학과 10명, 예체능 1개 학과 1명으로 자연계 학과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연세대는 2025학년도 4개 학과에서 5명의 미충원이 발생했다. 전년도 10개 학과 18명보다 줄어든 수치지만, 이는 자연계 논술 추가시험에 따른 정원 초과 선발 영향으로 분석된다. 2025학년도 논술 추가시험을 통해 모집정원보다 58명이 추가 선발됐으며, 해당 인원은 2027학년도 자연계 16개 학과에서 정원이 감축될 예정이다.

고려대는 2025학년도 25개 학과에서 43명의 미충원이 발생해 최근 6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인문계열 7개 학과에서 14명, 자연계열 18개 학과에서 29명이 미충원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확대 영향으로 서연고 합격생 가운데 상당수가 의학계열로 이동하면서 자연계 학과 중심으로 미충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대와 고려대의 경우 미충원 학과 대부분이 자연계에서 나타난 점도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3월 9일 (월)

음력 : 1월 21일

수도권 날씨

1~7°C

운동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빨래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세차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외출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해돋이 / 06:53 | 해질 / 18:33

지역예보: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한국 야구대표팀, 대만전 연장끝에 4-5 패배
▲김성현, PGA 푸에르토리코 오픈 3라운드 공동 33위 /사진 뉴시스

▲남자 하키, 칠레에 밀려 월드컵 예선 8위... 무승으로 대회 마무리
▲여성 서사 전면에... '렘피카' '말벌' '정희' 국내 초연

▲뮤지컬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내달 1일 새 시즌 개막
▲'노벨문학상' 라슬로 '짐레는 거기에'... 첫 번역은 한국어



편의점
체험-서비스 결합
플랫폼 진화
니



Life

CJ올리브영
라이프스타일까지
외국인 소비 확산

L2



30년 주방 불 밝힌 열정... “전주만의 미식 경험 전하고 싶어”



새벽을 여는 사람들

라한호텔 전주 임채진 조리팀장

라한호텔 전주 주방의 불이 켜지는 시간은 새벽 5시, 그 중심에는 30년 넘게 호텔 조리 현장을 지켜온 임채진 조리팀장이 있다. 그의 하루는 새벽 4시 기상으로 시작된다. 간단히 하루를 준비한 뒤 오전 5시 호텔 주방으로 출근한다. 출근 직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조식 인원 확인이다. 투숙객 규모에 따라 조식 메뉴 준비와 조리 인력 운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조식은 호텔 미식 경험의 첫 관문인 만큼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임 팀장은 “출근과 동시에 조식 고객 수를 확인하고 바로 현장 업무를 시작한다”며 “특히 조식뷔페는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이 이용하기 때문에 메뉴 구성과 음식 상태를 세심하게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라한호텔 전주 조식뷔페에서는 가마솥곰탕과 전북 부안 지역 특산물인 백합을 활용한 백합탕 등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한식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투숙객들도, 지역 제철 식재료를 만든 한식을 조식에서 경험할 수 있어 특별했다는 반응을 전했다.

연회 행사가 있는 날에는 하루 일정이 더욱 바빠진다. 임 팀장은 행사 참석 인원을 다시 확인하고 FSMS(자체 위생 점검)를 실시한다. 식재료 보관 상태부터 조리 환경까지 위생 전반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현장 업무 중에도 실무적인 관리 업무가 이어진다. 행사별로 필요한 식재료 발주 품목을 확인하고, 후배 셰프들에게 메뉴 교육과 조리 노하우를 전달한다. 조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이사항이나 메뉴 운영 방향도 함께 공유한다.

그가 조리 인력 교육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기술보다 ‘직업에 대한 마인드’다. “셰프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양과 즐거움을 책임지는 직업”이라며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



임채진 라한호텔 전주 조리팀장.

/라한호텔 전주



30여년간 조리현장 지킨 조리팀장
5시 출근해 고객 파악 후 메뉴 관리
지역 제철 식재료를 만든 한식 선택

셰프, 먹는 사람의 영양 책임지는 일
소중함 대접하는 마음으로 요리해야

전주 비빔밥서 착안한 ‘비빔빙수’ 등
지역 전통·미식 매력 음식에 담고파
로컬 식재료를 현대적인 메뉴 풀어내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요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요리는 기본을 지키면서도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능력에 도달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정체되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 순간을 깨닫지 못하면 열정이 줄어들고 결국 태도나 결과물에서 티가 나게 되더라고요. 호텔은 늘 새로운 고객을 만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정체되지 않도록 계속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웃음)”

임 팀장은 호텔 외 식 트렌드의 변화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다.

과거에는 프랑스 요리처럼 긴 조리 과정과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정통 코스 요리가 호텔 미식의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조리 과정은 간결하되 감각적인 맛과 콘셉트를 갖춘 메뉴가 더 주목받고 있다. 또한 밀키트와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외식 산업이 재편되면서 ‘속도와 경험 중심’으로 소비 기준이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임 팀장은 “지금은 유명 맛집의 메뉴나 유행하는 음식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라며 “호텔과 지역 외식업체는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라한호텔 전주가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 개발에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주 비빔빙수’다. 전주 대표 음식인 비빔밥에서 착안한 이 디저트는 낫그릇에 수박, 망고, 키위 등 신선한 과일을 담고 우유 얼음과 팥, 딸기 시럽, 복숭아 찹쌀떡 등을 반찬처럼 곁들여 직접 비벼 먹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임 팀장은 “전통과 미식의 도시인 전주의 매력을 여름 디저트로 표현하고 싶었다”며 “알록달록한 색깔과 고급스러운 담음새 덕분에 인증 사진을 남기려는 고객이 많아 재료가 조기 소진될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겨울에는 전주 한상 풍류도 선보였다. 구절판 형태의 접시에 완주 꽃감, 임실 치즈, 무주 사과 등 전북 지역 특산물을 담고 화이트 초콜릿 풍류를 곁들인 디저트다.

임 팀장은 “전통적인 느낌이 강해 고객 반응이 걱정됐지만 20대 직원들

이 오히려 독창적이라는 의견을 줬다”며 “20대부터 50대

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의견을 나누며 메뉴를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이 라한호텔 전주 F&B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컬푸드 프로젝트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으로 ‘로컬 식재료의 현대적 재해석’을 꼽았다.

“로컬이라는 개념은 자칫하면 올드하고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역 식재료를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적인 플레이팅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려고 했습니다. 의미가 있어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고객이 ‘먹고 싶어서 선택하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목표

입니다.” 임 팀장은 최근 전 다음날 투숙객 현황과 VIP 고객 리스트를 확인하며 하루 일과를 마무리한다. 30년 넘게 주방에서 온 그는 가장 큰 보람을 고객의 한마디에서 찾는다.

임 팀장은 “호텔을 다녀간 고객이 ‘특별한 조식을 경험했다’거나 ‘음식이 좋았다’는 후기를 남겨줄 때가 가장 뿌듯하다”며 “호텔에서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의 성취감도 크지만 결국 가장 큰 동기부여는 고객의 칭찬”이라고 말했다.

임 팀장은 “호텔을 다녀간 고객이 ‘특별한 조식을 경험했다’거나 ‘음식이 좋았다’는 후기를 남겨줄 때가 가장 뿌듯하다”며 “호텔에서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의 성취감도 크지만 결국 가장 큰 동기부여는 고객의 칭찬”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라한호텔 전주 조식 한상.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 “쿠르드족 이란 진격 원치않아...유가 매우 빠르게 떨어질 것”
▲트럼프 “함모 따위 필요없다”...이란 공격 초기 미지원 엿에 ‘뒤끝’
/사진 뉴스스

▲러,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주거지 미사일 공격 최소 8명 사망
▲시진핑 “당에 탄 마음 품은 사람, 군에 있어선 안돼”

▲中왕이, 트럼프 방중에 “이미 의제 준비돼...불필요한 방해 없어야”
▲中왕이, 일에 “주제넘은 행동 말아야”...대만문제엔 “통일 못 막아”